(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37 1982년2월2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February 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EB 2 1982

교포여인 은행강도에 봉변

"유비무환"으로 뺏긴 돈은 상환받아

미리 작성한 예금전표가 증거

한 교포여인이 은행에서 강도를 맞았으나 미리 작성했던 「예금전표」 때문에 강탈당한 돈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지난 27일상오10시30분 전날 매상액을 예금하러 가게옆 커머스뱅크(사우스포트 스트릿)에 들른 남순희(49)씨는 때마침 은행에 권총강도가 들어와 돈을 요구, 실갱이를 벌이다 권총채로 머리를 얻어맞아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갖고있던 돈과 수표를 포함 도합 1,670달러를 빼앗겼다. 남여인이 들어서기전 이미 이 은행은 3명의 권총강도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다.

무장괴한들은 3명의 금전출납계원을 하나씩 차례로 데려나와 그들이 맡고 있는 창구의 돈을 전부 꺼내도록 강요했다.

이들중 1명은 권총을, 다른 1명은 개머리판없는 라이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강도들이 매니저 스미드씨에게 금고실문을 열게 했으나 열지 못하자, 수차례 머리와 얼굴을 강타해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 은행금고는 미리 정해놓은 일정 시각에만 열린다.

이번 사건에 말려든 남여인은 은행과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같은 몰안의 버라이어티·스토어(Swansea Variety Store)를 경영하고 있고, 매일 아침 이 은행에 입금하곤 했다.

은행측은 남여인이 평소 입금전표를 미리 작성하여 은행에 가져오는 것을 알기때문에 그녀를 신용, 전표에 적혀있는 금액을 내준 것이다.

이날도 여느때처럼 입금하러 은행문을 들어선 남여인은 은행안이 텅텅비고 한 흑인 남자가 품안에 손을 넣고 빠른 걸음으로 나가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았다. 남여인에게 바싹 다가온 흑인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 반항하자 이 흑인은 남여인의 머리를 권총이 든 손으로 강타, 그녀는 잠시 실신했다. 남여인이 본 흑인강도는 복면을 하지 않은 중키에 깡마른 사내였다.

실신에서 깨어난 남여인은 매니저를 비롯, 은행직원및 10명의 고객과 함께 금고실이 있는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경황중에도 제일먼저 정신을 차린 남여인은 3명의 일행 강도들이 검은 색의 작은 운동가방에 다 돈을 쓸어넣고 11시경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남여인은 입금하러 가져간 수표 1장과 입금전표가 은행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들었다.

은행과 남여인이 강탈당한 금액은 모두 17,970 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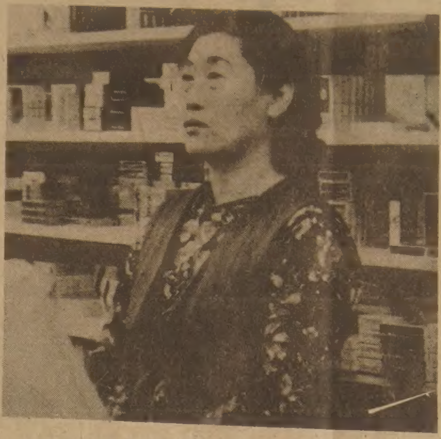
갇혀 있던 은행 직원과 고객들은 너무 놀라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고 말해도 주저앉은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당시 수난을 겪었던 은행원들은 위로휴가를 받고 2월1일부터 다시 출근한다. 인에 관련없이 계속 출근 하고 있는 매니저 스미드씨는사건발생 3일전 동지점으로 부임했으며 이번사건을 포함 3번째 은행강도사건을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금년들어 가장 대규모의 은행강도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킨즈웨이 쪽으로 달려갔으며 그곳에서 밴(Van)을 타고 도주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29일현재 사건을 담당한 메트로토론토 경찰 무장강도 전담반은 아직 범인들의 신원및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강도에 혼이난 남순희여사가 자기가게에 서있다.

죠·클락의 일실일득

빌의원 탈당, 게리의원 복귀

(오타와)에드몬톤의 빌·유르코 의원이 28일 보수당 탈당을 선언, 죠·클락 당수밑에서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지도력문제로 심심찮게 비판을 받아온 클락에 큰 타격을 주었다.

"당의 비젼은 더 이상나의 비젼이 될 수 없으며, 당지도층이 나에게 제공한 것도, 내가 당에 제공할것도 더 이상 없으므로 탈당, 무소속으로 뛰겠다"는 유르코 의원은 자유당의 개헌안을 지지, 당의 방침을 어긴 이후 그의 탈당은 시간문제로 여겨져 왔었다.

한편 지난 달 탈당했던 브루스·그레이지역의 게리·쿠르빈 의원은 유르코 의원의 탈당선언이 있기 4시간전 1개월간의 자지성찰 기간을 끝내고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 조·클락에게는 일실일득(一失一得)이 됐다.

와일드 캣츠 우승

동계체전 하키, 휘문중학에 5:1로

(서울29일=본사전화)모국의 동계체전에 참가한캐나다 교포하키팀 와일드·캐츠는 체력의 열세에도불구, 우수한 개인기와 패스웍으로 휘문중학을 5:1로 물리치고 중학부 우승을차지했다.

29일 동대문실내경기장에서 와일드 캣츠의 곽·베니군과 최·에디군이 뛰어난 개인기로 링크를 누비며 훨씬 세력이 우세한 휘문중학을 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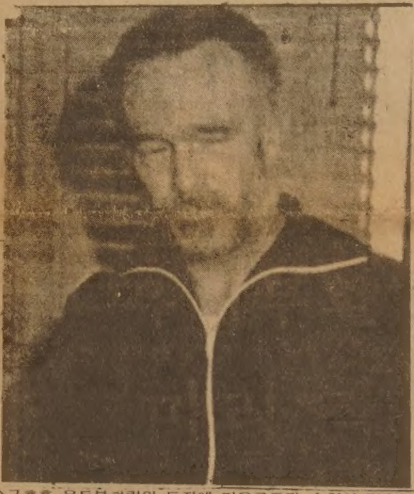
한편 27일열린 광성중학과의(1회전)준준결승 에서는 첫 피리어드에서 링크에 익숙치못해 1:3으로리드를 당한후 2,3 피리어드에서 다시 승기를잡아 5:3으로 역전승했다.

28일 준결승전에서도 보성중학을 5: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와일드·캣츠팀은 토론토를 중심으로한 교포소년들 18명으로 구성, 지난21일두명의 캐네디안 코치 라인스씨 부자와함께 현지로떠났다.

구출직전 살해될뻔

42일간 볼모 도 장군



◇구출후 운동복차림의 도지에 미육군준장. 수염이 텁수룩한것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준다.

28일 아침 이태리경찰특공대에 의해 구출된 미육군 도지에 준장은 구출직후 "경찰특공대가 온 것을 눈치채고 범인들이나를 죽이려 하는 순간 구출됐다."고 말했다.

이태리 과격파인 「붉은 여단」에 의해 42일간 인질로 잡혀있었던 NATO이태리지구 참모차장 도지에준장은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붉은 여단」의 인질이었다.

한편 도지에 장군을 잡았던 「붉은 여단」은 이태리에서 최고 위험한 단체이고, 지난 10여년간 최악질의 테러집단이며, 또한좌익계열로 알려졌다.

그들은 내전을 통한 공포와 무정부상태를 빚어, 공산국가를 세우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의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공산당도 이 단체를 비난,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다. 「붉은여단」은 지난 12년간 유명인사 납치, 살인등을 저질렀고, 은행털이로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을썼다.

이들이 저지른 사건중가장 악명 높은 것은 전 이태리수상 모로씨의 납치, 살해극이었다.

모로 수상의 시체는 78년5월 로마의 한 파킹장에서 발견됐다. 이당시「붉은 여단」그룹은 모로 수상의 생명을 갖고 감옥에 있는 13명의 동료 석방을 내세웠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도지에준장이 납치된 동안 테러그룹들은 5번의 비밀통신을 통해 유럽에 퍼지는 평화 운동을 지지하겠다고 모호한 발표를 했다.

◇아빠의 사진을 들고있는 도지에 준장 부인과 딸 쥬디·도지에 미공군중위. 통신사에서 전해준 사진을 들고 환희하고 있다.

토론토연설 취소

「트」수상 독감으로

(오타와)트루도 수상은 29일 토론토의 로얄·욕 호텔에서 가질 계획이었던경제운제에 관한 오찬연설을 독감을 이유로 하루전 급작히 취소했다.

트루도수상은 맥케큰 재무상이 작년 11월 예산을 발표한 이후 계속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 온데 대해 반박할것으로 기대됐었다.

수상은 지난 25일 이후 독감을 앓아왔다고 대변인이 발표했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5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성균관대학교정기총회

새해및 구정을 맞이하여 늦게나마 동창제위께 인사를 올립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왔던 성균모임을 아래와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부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일 시 : 2월13일(토)오후6시
장 소 : 클링톤하우스 2층(BLOOR ST. W.)
회 비 : $20
연락처 : 김영창(884-0284), 김춘탁(534-1085), 이인덕(535-7772)

성균관대학교동창회장 : 김영태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레이건 미대통령 연두교서

$470억 사회보장기금 주정부 이관

금년하반기 미경제회복 목표

(워싱턴 —)레건대통령은 26일밤 의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 가까운 장래에 미국경제는 호전될 것이라고말했다. 레건대통령은 4백70억달러에 달하는 각종사회보장계획을 연방정부로부터 각주정부로 이관하자고 제의했다. 레건대통령은또 연방예산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지않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노인과 가난한 국민들에게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건은 세금을 올리는것이 정부예산균형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세금을 증액하면 정부지출은 늘어나고 민간투자는줄어들 것이므로 세금인상은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산을 감축시키며 미래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말했다.

이번 연두교서의 키포인트는 방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되 혼란을 예방하기위해 약10년간의 과도기간을 두자는 것이었다.

레건은 메디케이드를 연방정부가 떠맡는 대신 푸드 스탬프와 AFDC(남편없는 유자녀부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계획등을주정부가 운영하고, 교육, 지역사회개발, 교통등 40여개 연방정부계획을 각주정부 관할로 이관할 것을 제의했다.

레건은 정부예산상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류와 담배류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납세자의 부담위에 정부예산균형을 도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감세정책과 정부지출감소정책을 변호하고 이와같은 정책이 결국은 미국경제를 침체상태에서 끌어내 금년 하반기까지는 번영과 안정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말 거리표지· 시장과 만찬

지역확대·패밀리닥터유치, 번영회 계획

코리아타운 번영회(회장 장순채)는 27일 정오 번영회의 사업계획으로 코리아타운의 지역확대, 지역내의 사유치, 한글로 거리표시작업등을 발표했다.

장회장, 변의섭 부회장, 유지원 총무가 합석한 자리에서 번영회는 교포들사이에서 한인회관 이전문제에 번영회가 앞장 서 온것같이 인식되는 점을 고려, 회관이전 문제에는 관여치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모든 연락, 업무는621a Bloor St. W.(전화 537-6685)의 연락사무실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사업계획은

●코리아타운을 동서로는 오싱톤에서 애비뉴까지, 남북으로는 칼리지에서 대번포트까지로 확대한다.

●패밀리·닥터와 치과의사를 코리아 타운에 유치한다.

●거리표지를 한국말로 하기 위해 우선 2월하순경 아트·이글튼 토론토 시장 초청, 만찬회를 갖는다.

●금년 겨울부터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새로운 한인 비지니스가 코리아타운에 들어올경우,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외환은행과 교섭,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도록 설치된 소비자보호위(위원장 강찬영)를 적극 활용한다.

아버지의 서명 못받아 사생아로

딸의 출생 7일후 암으로 사망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안아볼 수 있도록 유도분만으로 딸을 낳았으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싸인을 받기 전 남편이 숨짐으로써 딸은 사생아로 변해 아버지 이름도 못 가지게 됐다.

첫 결혼에 실패한 팻·오코너(35)여인이 동거남편인 고드·젠킨즈(47)와의둘째 아기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고드의 암이 심각한 고비에 들어섰고, 고드는 아기가 생긴다는사실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 고드의 병세는 급격 악화, 의사들은 그가 출산예정일 이주일전인 크리스마스를 못넘길 것으로 진단했다.

팻·오코너가 고드·젠킨스를 만난 것은 첫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직후. 첫결혼에서 낳은 세 아들중 2명만 데리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런드에서 토론토로 이사온 팻은 빅토리아·스트릿에 얻은 새 아파트에 들여놓을 가구를 사기 위해 중고가구점을 돌아다니던중 가구점 주인 인 고드와 사랑에 빠졌다.

첫남편의 이혼거부로 재혼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79년 가을부터 동거 하기 시작, 16개월된 아들 앨런을 두었고, 고드의 증세가 시한부 생명인 암 진단을 받았을때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속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둘의 사랑에 감동한 담당산부인과 의사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드가 새로 태어날 아기를 볼 수있도록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당기자고 제의, 마침 크리스마스를 넘기고도 아직생명을 지탱하던 고드는 무사히 태어난 예쁜 딸아기 제니퍼가 생후 7일째 되는 날까지 살면서 안아보기도, 입맞춤해 주기도 하며 생의 마지막 환희를 맛보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딸아이에게 전승하고 싶어하던 팻의 소망은 고드가 출생신고에 사인을 하기 전 숨졌으므로 이룰 수 없게 됐다.

비련의 주인공 팻은 퀘벡에 있는 한 신부가 아기로 하여금 제니퍼·젠킨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수일내 아기와 함께 퀘벡으로 가 보겠다고.

◇남편이 남기고간 가장 귀한 선물 제니퍼 아기에 입맞춤 하고있는 팻·오코너여인. 위의 네모안은 딸의 출생을 본지 일주일만에 숨져간 아버지 고드·젠킨스

한미문화교류위 폐막성명

한국학·미국학 교류확장 결의

(워싱턴 28일=연합) 한·미 문화교류위원회(the Korean-American Cultural Exchange Committee)는 28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민들의 이해촉진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설치등을 줄거리로 하는 9개항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제1차 회담을 성공리에끝마쳤다.

외교및 국가안보원 원장인 노재원대사와 미 국제통신사 국장 찰스·윅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은 이 위원회가 양국의 문화및 교육관계의 기존 제도지원을 돕고, 양측의 공동관심사인 문화, 교육교류 프로그램 장려를 위한 협력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이미 양국의공공및 민간기구에 의해 계획된 한·미 외교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고 이 계획들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 힘자라는데까지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대표는 양국의 대학과 학술협회와 협력, 한국학과 미국학에 대한 학문교류프로그램을 확장 하기 위해 계속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미 양국민들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체육 교류확장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위원회는 스포츠부문 교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제안했다.

회담이 끝난 후 노 대사는 양측이 민간차원에서문화교류확장에 동의한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포켓용 소형TV개발

2월말 시판, $240씩

(도오꾜)일본의 소니회사는 27일 주머니 속이나 핸드·백속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한 소형 휴대TV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소니회사는 2월말쯤 일본에서 시판될 이 FD-200형 TV의 가격이 $240 쯤이라고 밝혔다.

人種差別 심리관이 人種差別言辭사용말썽

“「너더러운 東洋人아」는 日常用語아니냐”

「白人동네, 교포入住방해」

檢察側 예비청문회

朴봉준씨가 陳述書 읽는동안 손톱깎던 審理官“빨리읽어라”

“政府관리론 있을수없는 處事” 人權상담관등 정식제소 밝혀

LA근교 말리브해변 언덕에 새집을 구입한 교포 박봉준씨(40)에게 인종차별과 함께 총기로 까지 위협했던 이웃백인 스카트·마일러스(35)에 대한 검찰의 예비청문회가 지난 27일 하오3시 산타모니카 검찰청 제3호실에서 열렸다.

청문회는 로버트·포트윈(Robert Potwin Hearing Officer)심리담당관이 주관했다.

이자리에서 박씨는 미리 공증을 받은 5페이지의 진술서를 읽어나갔다.

박씨의 진술내용중 이웃백인이『너 더러운 멍텅구리 동양인아!』(You dirty jerk oriental!)라는 인종차별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포트윈심리관은 『그런말은 보통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냐』(That's regular language, isn't it?)라고 말해 청문회 방청자들은 심리담당관 자신이 인종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낳게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을 심리하는 공직자마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백인을 두둔하니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더구나 포트윈심리관은 박씨가 진술서를 낭독하는 동안 손톱을 깎으면서 관심없이 딴청을 피우면서 신경질적으로 『빨리 읽으라』고 재촉했으며 이같은 위압감적인 분위기에서 박씨부인 박현주(27)씨는 진술서를 밝히지도 못하고 그대로 심리관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또한 심리관은 진술서를 준비도 하지 않은 마일러스에게 『총기는 있느냐』는 단순질문을 했으며 사건목격자인 박씨부인 박현주씨에게는 『총인지 파이프인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묻기까지 했다.

이날 산타모니카 검찰청 대기실에는 하오2시부터 웨스트사이드 공정주택위원회의 브레치·롤스로프위원장, 조로·테일러상담관, LA카운티인권옹호협회 제이·하버자문관등을 비롯해 10여명의 인권단체관계자들이 나와 박씨부부를 격려했다.

예비청문회직후 『너 더러운 멍텅구리 동양인』이라는 표현이 일상용어라고 말한 심리관의 자세에 대해 박씨부부는 제이·하버 인권상담관, 롤스로프위원장등은 놀라움과 함께 즉각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공직자의 공평치 못한 언사표현은 정부관리로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밝힌 제이·하버상담관은 『이 문제를 LA카운티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로·테일러 공정주택위원회 상담관도 『각 인권단체대책회의를 소집해 부당한 심리관을 인권법에 의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간女性

청소년「직업은행」

교포업계와 연결

16~25세대상 취업알선

(LA지사)한인청소년회관(관장 제안김)은 일자리를 찾는 교포청소년들과노동력을 필요로하는 교포업계를 연결시켜주는「직업은행」을 개설했다.

이 직업은행은 16세에서 25세 사이의 구직을 원하는 교포청년들이 구좌에 등록하면 희망직종별로 고유번호를 지급 받으며, 또 구인을 원하는 업체도 구좌에 등록 직종별 고유번호를 받게 되어, 직업은행은 서로의 고유번호를 비교검토해 알맞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한인청소년회관의 컴뮤니티워커 최성열씨는『직업은행은 일반기술이 없이 취직능력이 없는 교포청년들에 주로 단순노동직을 알선해 준다』고 말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도는 교포청소년들에 일자리를 세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청소년 선도작업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편이를 제공해 주는 무료봉사사업인 직업은행은 구좌에 등록된 고유번호를직종별로 분류하여 영구히 보관하며, 일단 직업은행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이 다른 직업을 구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한인청소년회관은 작년 9월부터 교포청년들의 직업알선을 맡아 왔으나 이번 21일부터는 이 직업은행을 마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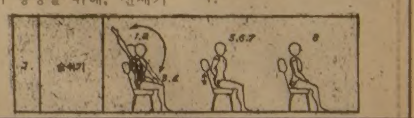
직장인들에 좋은 「의자체조」

스포츠과학연구소 개발

서독·일본등선 이미보급·대중화

실내서 짧은시간에 신체단련

◇의자 체조



(서울)대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스포츠 생활화와 국민체위 향상운동을 펼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올해부터 손쉬운「의자체조」를 적극 보급키로 했다.

이 의자체조는 운동할기회가 적은 직장인들이 실내에서 짧은 시간에 가볍게 몸을 풀면서 신체단련을 꾀할 수 있는 생활체조의 하나이다.

서독, 일본등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미 트림운동의 하나로 의자체조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국민체위 향상을 위해, 신세기체조, 새마을체조, 국민체조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며, 서울 YMCA서는 덴마크의 리듬체조를 본딴 건강체조를 창안, 각학교를 통해 보급에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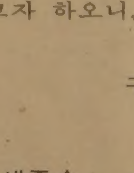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로와 운동부족으로 몸이의 약해지기 쉬운 직장인들의 건강증진에 이 의자체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체조는 ①가슴, 옆구리, ②목, 어깨, ③팔, ④다리, 5 ⑤등, 배, ⑥ 몸통, ⑦숨쉬기의 순서로 되어있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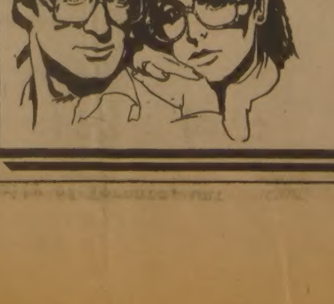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7시30분, 토 : 9시~2시까지

확장이전 특별세일

블루어안경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겨울철 특별봉사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1차 왕림하셔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구 진 모



새주소 :
635 BLOOR ST. W.
(전 은하보석상 장소,한국관 앞)
531-2236(B), 886-0722(R)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여행상식> ⑤

방문초청 1달이내 수속완료
항공표는 토론토가 싸

김창범 (신세계여행사)

3. 방문초청

5~6년 전만해도 이민과 모국방문이 여행의 대종을 이루었으나 요즈음에는 방문초청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이민을 제한하게된 데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한국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의 경향에 따른 변화에도 기인한다.

가. 방문초청 한계

방문초청이란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척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잠시 방문하는경우를 말한다. 현재 3촌간까지 초청이 가능하다. 직계로 3촌, 조카까지 포함되고 부부는 무촌이므로 처가나 시가쪽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동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되어있다. 즉 자부의 부모를 초청하고자하면 아들이 장인과장모를 초청하는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금년8월부터는친구초청도 가능하다고한다. 이외에 상업, 기술교육, 종교, 문화, 사회, 체육등 각분야에서 캐나다거주 자연인이나 법인체에서 재정보증을 서고 초청하여도 옳수있다.

초청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재정보증이 포함된다.

나. 초청수속

소정양식의 영문과 한글 초청장을 각각3부 작성한다. 영사관이나 여행사에비치돼있는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기재내용은 아래와같다.

①초청인의 인적사항 :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초청자와의관계, 캐나다입국일, 여권또는 시민권번호.

②피초청인의 인적사항 : 성명, 현주소, 본적, 생년월일, 직업, 초청기한.

호적등본등 법적서류는 여권수속할때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상의 인적사항을 소정양식에 기입하고초청인의 서명을 받은후 한국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은후 영문과 한글초청장 각2부씩을 본인에게 우송하면 된다. 얼마 전까지는 공증인의 서명을 받도록 돼있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생략됐다.

초청장을받은 한국의 피초청인은 출국수속을 시작해야 하는데 요령을 모를때에는 한국에있는 여행사를통해 정식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속을 대행시킬수있다. 그방법이 정확하고시간이 단축된다.

외무부에 접수되어 신원조회등이 끝나고 소양교육을 받은후 여권이 나오기까지 1개월이 걸린다. 여권이 나오면 캐나다대사관에 가서 방문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상의 장기방문은 까다롭고 신체검사를 거쳐야할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2개월의 단기비자를 신청한다. 미혼남녀는 직장증명과 보증인등을 요구받을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혹시 캐나다의 가족과 합류하는것이 아닌가 하는의심에서이다. 한국에 뿌리가 있고 돌아올것이 확실하면 비자를 내어준다. 과거에이민을 신청한적이 있고, 또 전가족이 현재 캐나다에거주하고 있으면 비자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여하튼보증인이 얼마나 확실한가그리고 영사의 심증으로 돌아올것이 확실하면 비자발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때 항공권을 보내주었느냐고 문의하므로 비자받기전에 항공표를 보내주어수속을 빨리 끝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 방문초청요금

항공요금은 한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 즉 출발지와 출발일을 기준으로 항공요금이 책정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방문초청 의 경우 서울발론돈까지의 왕복요금이 서울에서 구입할 때와캐나다에서 구입할 때 약 500달러의 차이가 있다.

항공표는 여기서 발권, 표를 직접 우송해야 한다. 따라서 초청장과 함께 우송하면 된다. 요새는 초청장을 보낸후 늦어도 1개월에서 2개월이내에 올 수있으므로 미리 보내는 것이 수속하는데도 편리하다. 방문초청의 왕복요금은 CPA나 KAL이 거의 비슷하다. 미국비자가 없는 방문자에게는 CPA편이 편리하나 비자가 있으면 미국의 LA나 뉴욕등에서 친지를 만날 경우 KAL노선의 미국경유가 의의있을 것이다. 미국비자가 없어도 KAL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미국방문을 원할때

(한국일보 1월30일자 참조)

많은 방문객이 일단 캐나다에 도착한 후 미국에 들어갈 것을 희망하고 이곳에서 미국입국비자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힘들다. 왜 한국에서 받아오지 않았느냐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한국사람이 제3국에서 미국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발급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라파나 중동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캐나다를 방문한후 미국입국비자를 얻어 입국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잠적해 버렸다는 사례를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들었다.

따라서 서울에서 캐나다입국비자를 받은 다음 미국대사관을 찾아가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의친척이나 친지로부터 보낸 초청장과 그속에 재정보증의 구절을 포함시킨 것을 보이고 캐나다에 갔다가돌아오는 길에 미국을 방문코자 한다고 요청하면 된다. 한국의 직장증명이나 리하다. 가능하면 복수비자를 얻으면 더욱 편리하다. 캐나다에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갈때 또 미국에 들릴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시간이 없어서 미국비자를 얻지 못하고 캐나다에 올 경우에는 직장증명, 재산증명, 보증인의 보증서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맡아오도록해야 한다.

이곳에서 신청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서울의 미국대사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보요금 $30을 지불하고신청해 놓으면 약 1주내지10일후에 통보가 온다. 이때 한국에 돌아가는 복편항공표와 미국에 다녀오는 왕복항공표를 첨부해야한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보통 단수비자를 주므로 미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비자가 끝나므로 캐나다에돌아올때 미국의 캐나다 영사업증명과 은행예금통장등을 첨부하면 그만큼 유사관에서 다시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복수비자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미국비자는 단수, 복수를 막론하고 처음 입국할 때 받은 I94 Form에 적힌 기간내에서는 캐나다나 멕시코는 여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민관에게 캐나다 갔다 또 온다는 말일 해I-94 Form출국일을 길게 잡는 것이 좋다.

마) 한국정부의 해외 여행화대화 방침에 따라 최근에 와서 여권법이 대폭 간소화됐고 학생들의 해외연수(단기)여행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지난 여름철에도 매일 수십명씩 해외로 연수차 떠났다고 한다. 해외유학의 선발기준이나 조건도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들었다.

부부동시 여행도 50세이상으로 제한되 있던 것이 작년 8월1일부터 40세이상으로 단축 됐다.

금년 8월부터는 친구초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계속)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26)

팔리·모왓 원작

가꾸미는 쭈그려앉아 파카 앞자락에 그 물건들을 벌려놓고 나서 그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보이기 위해 일어섰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대단치 않은 요술이었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샤만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기전에 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 가꾸미는 나에게서 총을 빌려가지고 보라는 듯이 빈 탄겁질을 재웠다. 개머리판을 접고 나더니 문밖으로 나가서 어둠속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는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가 방아쇠를 잡아 당기는 순간 실탄이 터지는 소리가요란하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래서 공중으로 몇인치나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꾸미와 다른 이할미우트는 의기양양한 표정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준비작업이완료되고 가꾸미는 이제 긴 칼을 빼어들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는 대략 30분동안이나 나가있었고 가끔 우리는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웅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돌아와서 그는 하나가 아니고 두 이누아를 만나 해치우고 오는중인데 하나는 칼로 죽여 버렸고 또 하나는 목을 졸라 죽였노라고 조용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천막안에 남았던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지만 어데인가 사건치고는 매우 싱겁고사실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쇼치고는 그럴듯 했는지모르지만 진실성이 없었다. 몇주후에 오호토는 그것이 모두 백인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플로트 였노라고 고백했다. 오호토는 설명을 하면서 만일 진짜로 귀신이 왔다면그렇게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에스키모들은 누구한테도 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귀신을 쫓아버리는 가상적인 예를 신중히 고려해서 보여주었노라고 말했다.

샤만이 사용하는 기구는 그저 단순해서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는 세계각처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소리나는 막대기 (일종의 악기)를 갖고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불로어러(Bull·Roarer)라고부르며 이할미우트말로 메메오라고 한다.

끝이 뛰어나온 얇은 나무로 만든 둥그런 칼날처럼 생겼고 끝에 줄을 달아놓았다. 머리위로 빨리 돌리면 그것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으면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것은 주로 병든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거나 어떤 사람이 꼭 지켜야할 금기를 어겼거나 자신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이용한다.

많은 이할미우트의 타부(금기)중에는 땅에 눈이덮히지 않았을때 가죽옷을못만들게 한다던가 소나기와천둥이 올때 쇠를 다루지 못하게 한다. 또 귀신을본후에 24시간내에 음식을못먹게 한다든지 그리고 임신중에 있는 여인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따위의 타부가 많이 있다. 겉보기에는 무식한 제한같지만 대부분이 놀랄 만큼 현실에 입각한 분별있는것들이며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할미우트가 갖고 있는 특별히 값어치가 있는것은 이린젤로라고 부르는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노래들이다. 이 노래들은 수세대를 통해동네에서 사람을 도와줄 때 불리워진다. 이 노래의 대부분은 나쁜 귀신이 사람을 몹시 병들게 했다고 믿어질때 치료에 특히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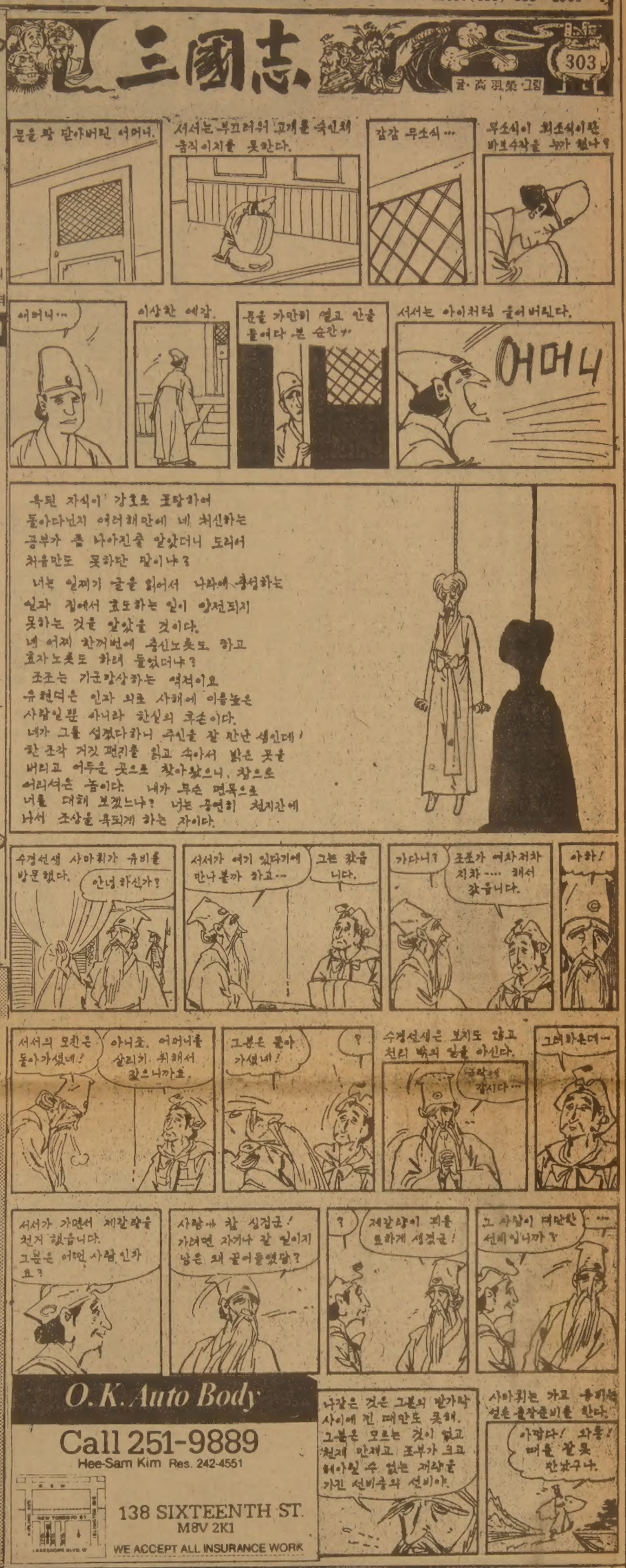
오텍과 함께 바렌을 여행하던 중에 언제인가 나는 배가 몹시 아파서 거의 죽을것만 같았다. 혹시 맹장염인가 하고 걱정을 했지만 텐트안에 누워서 아픔을 참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오텍은 매우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는 몇분마다 뜨거운 차를 끓여다 주고 나의 병세를 계속해서 물어 보았다. 그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고 부끄러워 하는 눈치였다. 몇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심중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대단히 신중하게 내 눈치를 살피면서 나의 뱃병을 고치고 싶은데 자기의 이린젤로(병을 고치는 노래)를 시험해 보아도 괜찮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자기 것보다 나의 기술이 (부적) 월등하다는 것을알고 있으므로 자기의 호의를 내가 무시할까봐 무척 주저했던 것이다. 실지로 나는 그의 마술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친절을 거절하기도 뭣해서 그의 호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MARVIN — STARR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카보로 지역의 마빈·스타 G.M딜러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 일하게됐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께 봉사코자 하오니 언제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 의 문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PRIX, PARI SIENNE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LESABRE, ELECTRA, RIVIERA

<각종 VAN트럭>, <데모카>, <USED CAR>

※BEST SERVICE IN TORONTO
● 스카보로의 유일한 한국 세일즈맨
●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토론토지역 최저의 자동차 가격보장
● 항상 300~400대의 차를 보유

주소 :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조 의 문

24개國營기업 經營不實땐 問責

年2회 經營진단…人事·辦償 병행

實績따라 보너스 8百%까지 差等지급

基本法 6월制定

정부는 국민총생산(GNP)의 약10%란 높은비중을 차지하는 韓電、石公등 24개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금까지 人事、예산등 경영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던 정부의 직접事前統制방식을 自律·責任경영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賞與金 격차도 대폭 확대실시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해까지 3백50~5백%의 범위에서 差等지급되던 國營企業의 인센티브·보너스를 금년부터는 최저기본 3백%에서 최고 6백%까지、내년에는 3백~8백%로 격차를 크게 확대、직원들의 경영개선노력을유도하고 그동안 관계부처의 국영업체 경영간여에대한 법적근거를제공해왔던石公法등 23개公社설립법、예산회계법、투자기관관리법、해외자원개발促進法등 40여개기존法律의 예산 회계 人事 업무감독관련규정을 전면失效化 시킬수있는 優先的인 基本法(가칭정부투자기관관리에관한기본법)을 제정키로했다。

이미 民正黨과협의를 끝낸 이 기본법제정은 오는 6월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法에서 해당公企業의 재산損失이 집행간부의현저한 경영不實에 이유가있을때는 人事問責뿐만아니라 개인財産에의한 변상등 재정問責까지도 강화하는 내용을포함시킬 방침이다。

27일 정부가최종확정한「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에따르면 국영업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대한 정부의사전통제나 人事면에서 경험없는 외부인사의 집행업무迎入을 최대한배제、예산간여는 인건비등 다른기업과의 균형을위해 불가피한 人件費증가율등의 기준이나 지침마련、업무용資産규모변동등에 국한하고 人事의독립성보장을 위해 실무경험없이 外部에서 영입해온 任員은 사장과 首席부사장을 제외하고는 일체진행업무를 겸임할수 없도록제도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토록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영업체 경영층을 의결기능 수행임원(이사회)과 집행 專擔임원으로 분리구성、의결임원은예컨대 고급관리나 軍將星출신등 社內外인사를 두루기용할수있으나 집행임원만은 社內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했고 임원任用절차도 바뀌사장이나 의결任員은 주무부장관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부사장을 비롯한 집행전담任員은 사장책임하에 임명토록했다。

그러나 국영기업、事後經營評價는 보다강화、정부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재무및 主務장관、관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내달중설치、問責 또는 인센티브부여에대한 평가를 전담토록하고 이위원회는 매년두번이상 전문가會計士 연구기관要員등을동원한 경영分析 用役團을구성、활용토록했다。

또 그동안 多岐化되어 연평균7회、70여일이 소요되던 외부監査는 통합、監査院에서 一元化실시토록하고 監査초점도 會計내용보다 능률에중점을 두도록했다。

인센티브·보너스의 확충내용은 지금까지 연간 기본보너스 3백%에다 인센티브를 50~2백%범위에서 지급(3백50~5백%)할수 있도록 했던것을 기본보너스3백%는 그대로두되 경영개선보너스를 0~3백%까지로 격차를 넓혀지급(3백~6백%)토록하여 財源은 금년각 기업예산상의 예비비에서 충당할수있도록 조치했다。

또 83년부터는 기본상여금외에 인센티브로서 경영개선보너스 최고 4백%까지에다 工期를 단축해서 투자를 효율화했거나 기술개발로 특별한 경영성과가 인정될때 주는 특별賞與金제도를신설 1백%까지 추가 지급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투자기업관리제도 개선방안을 1단계로 정부出資비율50%이상(종합化學은예외)의 국영업체에 적용하며 앞으로 여타정부出資회사에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구상이다。

24개적용대상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같다。

韓電 石公 鑛振公 油開公 住公 道公 産開公 해외개발공사 조폐공사 産銀 企銀 國民銀 종합화학 한국重工業 국정교과서 농어촌개발공사 農振公 貿公 관광공사 방송공사 주택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換率·金利調整 신중하게

全대통령、財務部 業務보고받고 指示

"銀行財務구조 健實化유도 中小企業育成에 계속노력"

"家計예금·信用카드制 대폭擴充토록"

全斗煥 대통령은 27일『수출신장만을위해 국내제반 경제여건을 고려치 않은 換率조정은 원貨의 平價切下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된다』고 지적、『換率문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羅雄培재무장관과 관계국장 6명、金興起금배、金壽鶴국세、金炳泰관세청장등으로부터 새해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말하고『은행金利조정도 저축을 늘리는 길이 外債의 累增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전제아래 국민들의 저축심리를 해치지 않도록 세밀히 고려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정부는 은행의 財務구조健實化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경제구조상 중소기업이 취약하다는것은 있을수 없는만큼 중소기업을 계속 육성하는데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家計預金제도와 信用카드사용을 대폭확충토록 하라고 羅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재무부 업무계획보고 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金埈成부총리、孫守益총리行調실장、申京植기획원예산실장등이 배석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羅雄培재무부장관(서있는사람)과 관계국장들로부터 새해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庶民자금 지원을 擴大 附價稅 문제점등 改善

財務部보고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財務部와 專賣廳 國稅廳 關稅廳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자리에서 羅雄培재무장관은 물가안정기반 정착을 위해 연간 총통화증가율 20~22%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상반기에는 통화공급을 소폭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긴축기조를 강화하며 金利와 임금이 생산원가를 높이지 못하도록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금리는 小幅으로 수시조정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은행금리와 第2金融圈및 정책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며 정책금융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羅장관은 또 고용기회확대를위해 주택자금 서민자금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쟁력강화를위한 금융및 세제지원、市銀민영화등 市場經濟의창달、식량및 에너지절약 시책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羅장관에 이어 6개국장들은 國庫 理財 證券保險 國際金融 稅制 關稅분야에관한업무계획을 직접보고했다。

李秀烋이재국장은 올해 국내여신은 민간부문 4조3천3백억원을 포함、총4조9천8백억원(연간증가율 23.0%)을 공급하고 특히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자금1조1천9백28억원、서민자금1조9천3백억원、중소기업자금 1조8천억원을 공급하며 5천만원이하 중소기업자금은 사전조사를 생략하여 용자해준뒤 사후에 시설물을 담보로 잡는 방식으로 용자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업체질개선을 위해 오는4월말까지 6천2백만평(5천7백억원상당)의 비업무용 기업부동산을 처분토록하는반면 新技術企業化자금 支援회사를만들어 기술개발을 적극지원하도록하며 연내 新韓、韓美및 中東系합작등 3개市銀신설및 기존市銀의 민영화작업、전반적인 금융산업개편작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李同浩국고국장은 건전재정운용및 정부계약제도 개선과함께 정부투자기관의 건전한 육영을위해 만성적으로 결손을 내거나 이익이 적게나는 정부출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安然爀증권보험국장은 증권시장 활성화를위해 우량기업에대한 자진공개유도、증권회사 投信회사의 大型化및 第3投信社설립、보험회사등 기관투자가의 채권투자확대와함께 83년중 코리아·펀드설립을목표로 사전준비를 올해안에 완료하며 보험분야에 있어서도 保障性보험 기능강화、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및 보험의 생활화를위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李勇成 국제금융국장은 국제수지개선을위해 올해75억달러로 책정된 소요외자를 원활히 조달하고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연불수출등 외화건실수출용 외화득사업을 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

이밖에 徐榮澤제세국장과 扈在鶴관세국장은 올해 세수목표달성을위해 각종세제를 정비하며 특히 附加價値稅를 효율적인 운영에맞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재무부는 88올림픽지원을위해 ▲선수촌등民資사업에대한 금융지원 ▲광고담배 발매확대로 대회자금조달지원 ▲올림픽추진관서에의 출연금등에대한 損費인정등 稅制지원 ▲올림픽손해보험개발 ▲기념주화및 기념담배발매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全대통령 訪佛보도 駐佛대사관서 否認

【파리26日AP=聯】駐佛한국대사관은26일 全斗煥 대통령의 프랑스방문에관한 보도를 부인했다。

대사관 대변인은 프랑스사회당정부가 장·프랑스와·퐁세 前프랑스 외상의 작년 [illegible] 全대통령초청을 아직결정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성소식통들은 全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이시기적으로 4월이나 5월이 [illegible] 에 이루어지긴 힘들겠지만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1億6百萬SDR 對韓借款승인發表 IMF

【워싱턴26日AP=聯】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한국에 대해 1억6백20만SDR(특별인출권 약1억2천만달러상당)의 인출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IMF는 이날 세계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위해 회원국인 한국에 차관을 허용키로했다고밝혔다。

消費者보호법 年內제정

金副總理 관련團體등에 補助金등도 支援

金埈成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消費者保護法시행령을 올상반기중에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하오 孫仁實회장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회장단 7명의예방을받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金부총리는 정부가 소비자보호에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관련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등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대책을 추진 하겠으니 소비자보호단체들도 이에 부응、소비자보호 운동을 적극전개해달라고당부했다。

金부총리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목적이 우리경제를 건전하게 이끌어가자는데 있는 만큼 관련단체들이 기업과 소비자간의 간격을좁히고 이해를 돕는 교량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外相 어제 來韓

中立國 오스트리아의 빌리발트·파르外相이 27일하오 7시15분 타이·인터내셔널便으로 來韓、盧信永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盧장관의 공식초청으로 28일간訪韓하는 파르外相은 28일상오 양국外相회담을 갖고 공동관심사를 협의한다。

파르 外相은 또 全斗煥대통령과 劉彰順국무총리、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파르外相의 訪韓에는 게오르크·라이슈 外務省경제국장등8명의 공식수행원과 9명의 기업인이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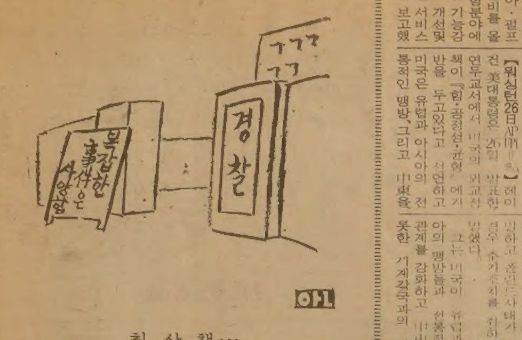
中共근로자 리비아 大量進出

【홍콩27日AP聯=聯】수백명의 중공노동자들이 조만간親蘇국가인 리비아에진출、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의「수출인력」들과 나란히 건설공사에 일하게될것으로 27일 전해졌다。

中東지역에는 이미 홍콩의 中東인력 수출대행회사인 크로니클·콘설턴트社를통해 이미 중공노동자 수천명이진출해있다。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는 이미 크로니클社는 고속도로 건설작업에 중공인노동자 1백여명을 파견하고있는 크로니클社는 오는 봄에 5백명을 추가로 보낼계획이며 中東지역에 모두 1만명가량을 더진출시킬계획을 갖고있다고보도했다。

社会漫評



최 상 책…

盟邦과 紐帶강화

波사태 惡化되면 새經濟制裁

레이건 年頭敎書

【워싱턴26日AP=聯】레이건 美대통령은 26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힘·공정성·현실』에 기반을 두고있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인 맹방、그리고 中東을 비롯한 세계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밤 9시(한국시간27일상오11시)美上下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또폴란드사태가 악화될경우 소련과 폴란드에대해 새로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쿠바와 리비아를 직접 지칭하면서『카리브海와 기타 세계지역에테러수출을 일삼는국가들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주로 국내경제문제와 연방정부의권한을 州정부에 대폭 이양하려는『新연방주의 계획에 상당한부분을 할애』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對蘇관계가 미국의 군사력증강을 바탕으로 현상태이불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아래 수행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폴란드사태에 언급、『폴란드의 인권을 탄압하는 군사독재정권과 그 배후의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미국이 탄압세력들과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않을것임을 전세계에 분명히 과시한것』이라고 밝히고 폴란드사태가 악화될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맹방들과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中東등 [illegible] 관계를 [illegible] 못한 세계각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경제문제에 언급、자신의 경제정책을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地平線

국내 일부 위스키회사들이 좀 민망스럽게 된것같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수출을 관리하는 영국 위스키협회에서 한국산위스키 병목에붙은「酒齡12년짜리원액사용」이란 표지를 바꿀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산위스키는 수입원액30%와 주정70%를 섞어 만드는데 원액 1백%제품으로 잘못알게하기때문에 스카치위스키의 유명도를 해친다는것이 그 이유다。

▼위스키는 햇수가 묵을수록 값어치가 나간다。 떡갈나무통에 담아 오래두면 저절로 香味가 나는 모양이다。 숙성기간이 3년도안된 위스키는 팔지도 않는다。 위스키는 살아서 숨쉬는 술인 것이다。 위스키의 원뜻은 스카치위스키의 원산지인 스코틀랜드의 켈트어로 생명의물이란것이다。 그고장 보리를 발효시킨다음 蒸溜해서 만든술이다。 영국에서는 정초에 위스키한병씩을 가지고나와 나눠먹는 습관마저있다。 또 위스키는 한때 통화구실을 하기도했다。 링컨의아버지가 인디애나州 개척자로 들어갈때 현금20달러와 위스키 10통이 기본재산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스키는 물론 스카치가 아니고 옥수수로만든 버번위스키였다。

▼작년에 우리국민이 마신술값만 7천억원、이가운데 위스키가 6백억원、맥주가 4천5백억원、청주3백억원、나머지는 대중주인 막걸리값。 막걸리는 원료가 쌀이라야제맛이 난다。 農酒 濁酒라고도 부르는데 막걸렀다고 해서막걸리다。 淸酒=藥酒는 옛날엔 집에서도곧잘담갔다。 술에 소예가깊고 林園經濟를 [illegible] 徐有榘의 雅號가 藥峰이어서 [illegible] 藥酒라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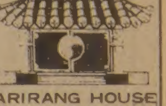
▼소주=燒酒는 위스키처럼 청주를 1차 담근후 2차로 증류한 술이다。 주로 북방에서 많이 애용되던 것인데 지금은 남쪽에서도 더울때 [illegible]기는 술로 되어버렸다。 흔히들 집에서도 고와지만 마포 東幕에서 팔던 소주가 유명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술소비량이 늘어 운전할때 알콜검사까지 받게되었다。 하나 위스키의본고장인 영국사람은 위스키를 그리 많이 안마신다고 한다。 스카치위스키、런던드라이진의고향이지만 세금이 너무많아、맥주비슷한 값싼에이르를 애용하는것이 영국민들이다。

▼술은 기분좋게 마시면 그만이다。 원액 1백%가 아닌것을 1백%라고 붙인것을 마셨다고 더 좋을 것은 없다。 愛酒家들의 입맛이 쓰지않게 국산위스키도 햇수를 묵어야 되는가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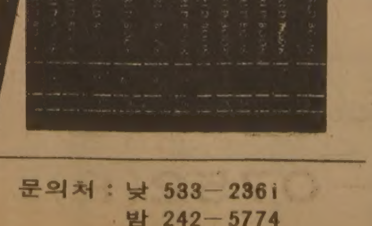
922-3111(B)
791-8196(R)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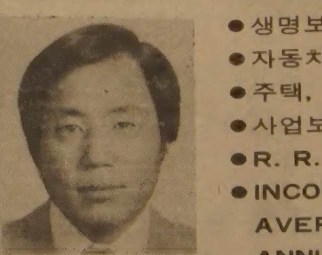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종 합 보 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절대 貧困層 해소

民正 零細民보호 長期대책 강구

救護·醫保 受惠幅넓혀

1家口 1子女에 獎學保險制도

民正黨은 絶對貧困層의 해소, 島嶼지역의개발촉진, 鑛山村의 환경개선등 零細民에 대한 구호및 의료보험의 受惠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島嶼지역·鑛山村개발促進法도 立案

民正黨은 영세민보호를 위해 정부측에서 추진중인 5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장기대책을 강구중인데 절대빈곤층 해소방안으로「1家口에서 1명이상이 안정된직업을 가질수있도록 영세민자녀중 1명은 실업계고교를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獎學보험제」도 포함되어있다.

이와함께 落後된지역의 개발을 촉진키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立案중인데 黨의 한관계자는『지역적인 불균형성장의 시정은 물론 안보적차원에서도 島嶼개발은 촉진돼야 한다』면서『일본의 경우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후 도서개발이 크게 앞당겨졌음』을 지적했다.

島嶼개발촉진법안은▲정부가 개발지역을 지정하면 그에따른 자금의 보조와 융자는물론 外資의 조달도 강구해야하고▲개발지역의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減免해주는 稅制상의혜택을 부여하고▲내무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각부처와 문교 국방 체신 교통차관및 관계도지사등으로 구성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民正黨은 이밖에 鑛山村의 塵肺症 예방과 치료를위해 관계법의 제정도 의원입법으로 할것을 추진중이다.

◇韓·美 文化交流회의 26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韓美 文化交流委員會의 회의장 모습。【워싱턴27日AP電送=聯合】

웨이퍼·칩社 設立 現代·亞南과 合作

現代그룹이 亞南産業과 제휴, 반도체의 핵심분야인 웨이퍼·칩제조회사를 합작설립할 계획을 세우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現代건설내에 특별전담반을 두어 전자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계속해 온 鄭周永現代그룹회장은 지난12월31일 亞南産業의 金向洙회장과 대면, 반도체사업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城東區華陽洞에 소재한 亞南공장시설을 돌아보았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LSI(대형집적회로)및 트랜지스터등을 생산하는 웨이퍼·칩공장설립을 검토하고있다는 것이다.

現代는 산업전반에걸쳐 전자기술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고있는 추세를 감안, 그동안 전자사업참여를 검토하고있는데 합작회사가 설립될경우 亞南은 반도체기술을 제공하고 現代는 총1억달러규모의 대형자본을 연차적으로 투입할것으로 알려졌다.

民韓、朴양사건聲明

責任소재 糾明、引責시켜야

人權침해搜査方法다시없게

民韓黨 金文錫인권옹호위원장은 27일 경찰의 朴尙恩양 살해범검거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대학생이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허위자백까지 하게한 경찰의 수사방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정부는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에대한 引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달부터 學資金 融資

82학년도 1學期分 國公立30만·私立40만원씩

總學長 추천받아 申請해야

2백10억원규모의 82년도 제1학기 학자금융자가 국민은행과 지방은행및 농협의 전국점포망을 통해 2월부터 일제히 취급되기 시작한다. 이번학기에는 1인당 융자금액이 국공립대학은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립대학은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인상됐다. 취급은행들은 이 고액 범위내에서 등록금전액을 융자해주게된다.

대상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국공립·사립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총학장의 융자추천을 받은사람이며 융자취급기간은 등록기간중이다. 융자기간은 단기학자금이 1년, 장기 학자금이 7년이며 금리는 연15.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신청을할때 구비해야할서류는▲총학장 추천서및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각1통▲채무자(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보증인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부실적증명서1통▲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학부모가 채무자로되는경우) 1통등이며 신청시 지참물은▲인감도장과▲주민등록증, 신청점포는 거주지 관할 점포이다.

용자금의 상환은 단기학자금은 1년동안 균등분할상환▲장기학자금은 4년거치(거치기간중은 이자만냄)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중 3백15억원을 학자금으로 융자했고 올해는 3백20억원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海外留學生에도 貸付

2천5백달러限度、無利子에 分割상환

총무처는 27일 공무원자녀 해외유학생에게 2천5백달러 범위안에서 貸付해주기로했다.

해외유학생에 대한 학자금은 기숙사비등을 제외한 수업료상당액을 國庫貸與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데 貸付조건은 無利子에 유학기간동안 据置후 일정기간동안 분할償還케 하고있다.

총무처는 또 공무원자녀가 학생인경우 지급하는 國庫貸與장학금과 본인이 학생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年金대부 장학금지급계획을 확정, 이날 각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 계획에의하면 학자금의 대부기간은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국고대여장학금은 無利子이고 年金대부학자금은 月利 0.5%이며 지급케된다.

年金대부학자금의 대부금액은 大學입학의 경우 45만원, 등록금은 25만원, 전문대학은 입학금 30만원, 등록금 24만원으로 정했다.

또 대부해주는 학자금액은 교육대학의 경우 입학금12만원, 등록금 10만원으로 정했는데 편입학이나 復學生의경우 입학금이 아닌 등록금으로 대부된다.

공무원자녀학자금은 公務員연금법이 적용되는 遺族또는 障害연금수급권자의 자녀 학생에게도 대부, 지급되는데 國庫대여장학금이나 연금대부 학자금을 대여받을수 없는 경우는▲부부공무원으로서 부부당사자 1人만해당되고▲원호대상자나 기타장학금을받고있어 등록금이 면제되는경우▲留級으로 재학기간이 연장된 正規재학기간을 초과했을경우등이다.

학자금대부취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국내거주공무원은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농협에 신청하고 해외주재 공무원은 외무부장관을 통해 새로발족된 공무원年金管理公團에 각각 신청케된다.

"首都圈 교통滯症 해소위해 地下鐵工法·버스路線 조정"

民正、서울市에건의

民正黨은 최근들어 서울의 지하철공사로인해 더욱심해진 首都圈의 교통滯症을해소하기위해 지하철 工法의조정, 都心버스路線의 재조정등 차량소통종합대책을마련, 교통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키로했다.

奉斗玩대변인은 27일『黨이 마련중인 종합대책중에는 교통滯症을 가장많이 加重시키고있는 지하철공사에 있어 통행에지장이 없는 터널工法施工지역을 대폭 늘리는한편 일반 지하철공사장의 도로占有率을줄이고 버스노선을 재정비, 기본적인 차량소통을위한 路幅을확보하고 유료도로및 터널의 통행요금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포함돼있다』고 말했다. 奉대변인은『이러한 교통체증해소종합대책은 서울시출신 黨소속 의원들의건의에따라 중앙당이 마련케 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대책중에는 버스 택시를 비롯한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펴는등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것도 아울러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民正黨은 정부 관계자및 지하철공사본부등과 협의, 이 방안을 곧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5분인터뷰 申東元 駐멕시코大使

市場性높아 投資에 好適地

建設分野등 進出 서둘러야

『멕시코는 한마디로 市場性이 큰나라예요. 이나라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79년에 4억달러, 80년에는 16억달러, 지난해는 30억달러로 急신장했읍니다』

公館長회의참석차 귀국중인 申東元駐멕시코대사는 석유를 배경으로 先發경제中進國으로 발돋움하고있는 中美의 리더인 멕시코에 각별한관심을 기울일것을 역설했다.

『국내에서는 멕시코를 곧잘 産油國이라는 시각에서만 보려하는데,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업계진출, 특히 건설분야의 진출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申대사는 구체적으로 멕시코灣일대의 港灣및 공업團地등 경제단지를 돌아볼 도시건설계획을 꼽는다. 총2백12억달러가 투입될 항만·도시건설계획은 우리로서 不況타개를 위한 투자의 好適地가 아닐수없다는 것。

『밸트티오 대통령한테 직접들은 말입니다만, 우리나라 港灣건설을 직접시찰토록 密使를 3번이나 派遣했다는군요. 우리의 港灣에 반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原油문제를 빼놓을수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原油도입선은 中東이 8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금년5월이되면 멕시코油田인 멕시코灣으로부터 태평양연안의 사리나·크루스까지 送油管이 가설됩니다. 이럴 경우 수송비는 中東라인보다 싸으면 싸지 비싸지는않을겁니다』

申대사는 단순한 原油확보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한다. 세계 石油시장에 原油가 남아도는한 産油國으로부터 직수입할 경우 우리나라商品의 우선購買를 산유국들이 보장토록하는, 이른바 바이·코리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申대사는 이제야말로 우리업체가 멕시코등 中南美지역에 눈을 돌려야할때라고 강조했다. 【金勝雄기자】

"統一방안제의 海外서好評"

北傀先導하는 平和공세로

美紙서 환영보도

【워싱턴26日=曺淳煥특파원】全斗煥 대통령은 統一憲法제정제의등 민주통일방안으로 北韓을 선도(先導)하는「평화공세」를 취하게되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紙가 26일 보도했다.

全대통령의 제의는 해외에서「창의적」,「건설적」,「실현 가능한것」이라는 呼評을 받았다고 이신문은 논평했다.

各界, 支持聲明발표

統一은 民族的念願

▲大韓藥師會는 27일 全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제의한 통일헌법제정제의를 북한측은 즉각 수락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 약사회는 이성명에서「북한당국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거부한것은 6천만민족의 염원을깨뜨리는 행위」라고비난하고 하루속히 이산가족의 인도적재회와 남북한간 자유로운人的교류가 가능하게끔 북한측은 全대통령의 평화통일방안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韓國基督敎指導者協議會는 27일 담화를 통해『南北통일은 민족의 至上課題이고 영원불변 아니라 역사의 命題』라고 밝히고『總選民主통일방안은 민족적인 지지는 물론, 온세계가 함께 환영할 역사적인 제의』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의 總選民主통일방안 천명에 즈음한 이담화는 北韓이 긴장을 고조하고 전쟁도발의 위험성이 높은 휴전선도발이나 간첩南派행위, 對南비방방송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상호신뢰가 조성되도록할것과 北韓사회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것을촉구했다.

▲在鄕警友會(회장 宋濟根)는 26일 全대통령의「민족화합통일방안」에대한 지지성명을내고『이번통일방안은 통일을 열망하는 온겨레의 염원을 하루속히 성취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국의 60만警友會員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內外動靜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우노·코이비스토대통령에게 축전을보내 양국간의 旣存友好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社說

나약해진 젊은知性
—朴양事件과 海外研修서 느끼는것

젊음의 힘은 미래의 國富이며 소중하게 키워갈 자산이다. 젊음은 지성과 야성 그리고 용기를 고루 갖출때 그 빛을 발한다.

지성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성장하며 야성과 용기는 무분별한 만용이아닌 젊은이의 강한 의지다. 이런「젊은 지성」이 힘차게 고동칠때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할수 있다.

젊음은 자랑스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태산을 떠밀듯한 浩然之氣를 지녔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지성을 예찬하고 아낀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여대생 피살사건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일부젊은이들이「정신적빈곤」에 빠져있지않나하는 우려를 떨어 버릴수 없게되었다. 어려운 인간수련을통해 미래지향적이어야할 대학생들이 즉흥적으로 쉽게 현실에 몰입해 버리는「표류·방랑하는 세대」가 되어가지 않나하는 걱정 또한 지워버릴수 없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애정놀이에 골몰하고 충동적이며 생명을 하찮게여기는 어지러운 자세가 과연 정상적인 지성일까…. 물론 예외적현상을 보편적인것으로 확대해서 생각할수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젊은이의 像」은 확실히 정신위생에 미흡이 있고 지성이 나약해지고 타락하는 풍조를 실감케 했다. 내일의 이상보다 지나치게「욕망의 그늘」에 얽매여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지적일까….

방황하는 오늘의 젊은 세대를 탄생시킨 원인은 여러모로 반성해 볼수있겠지만 우선 사회풍조와 교육의 분위기를 지적해야 하겠다.

우리 사회는 훌륭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충동을 優位에 두는 경향에 깊이 젖어있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보다 당장의 욕망충족에 너무 급급한다.

또한 치열한 대학입시의 경쟁은 입학과 동시에 해방감으로 이어져 자칫 정신의 해이를 빚기 쉽다. 이 해방감을 우리는 이해하고 어루 만져주고싶다. 그렇다고 대학을 해방감의 발산장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대학은 내일의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익히는「인간화림」의 전당임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은 면학과 최고지성의 산실임은 불변의 사실이다. 지성을 날카롭게 강하게 연마하는것이 본연의 사명이며 대학생의 의무다.

개방사회를 지향하면서 지난해 대학생 해외연수의 문호를 열었을때 우리는 솔직히 기대와불안이 엇갈렸다. 여대생피살사건의 비극은 이 불안이 현실화 되어 그 뒷맛이 더 씁쓸하다. 부유한 가정환경의 덕분으로 해외에 나가 낭비와 이성교제에 몰두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비지성적인 행동이었다.

해외연수의 참뜻은 관광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치여행일수없다. 선진국의 면학분위기를 배우고 견문을 넓혀야했다.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 한눈을 팔고 아까운 외화를 써버리는 탈선은 용납이 안된다.

절제를 상실한 나약한 지성은 설도 먹의 전통적 가치관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학우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연수동기생 모임도 과연 순수한 대학생들의 학업에 무슨 보탬이 되었는지 곰곰히 반성해 볼 일이다.

우리는 이성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를 원한다. 이번 사건을 다룬 경찰의 수사도 합리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물리적인 억지」로 범인을 성급하게 잡아 보겠다는 비지성적수사는 이제 깨끗이 청산돼야 하겠다.

경찰의 한책임자가 국민에게사과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억지수사과정」자체도 스스로 파헤쳐 주기를 바란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그 가치와 목적만큼 형식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성숙한 민주국민의 자질은 강한 지성의확립에서 찾아질수 있다고 믿어진다.

폴란드카드와 經濟展望
—레이건美大統領 年頭教書의 焦點

모든길이 그옛날 로마로 통했듯이 지금의 모든 길은 폴란드로 통하고있다. 적어도 국제정치무대에서 그렇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말하고있는것도, 그리고 원래가 핵미사일감축을 다룰 제네바의 미소외상회담의 내용도 그렇다.

레이건 대통령이 전세계 맹방과의 관계강화와 힘을 바탕으로한 소련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쿠바의 테러수출을 규탄한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82년의 연두교서는 폴란드라는 지극히 민감하고, 그만큼 복잡한 문제를 안고있다는데서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수있다.「맹방관계의 강화」나,「힘에 의한 협상」이 새로운 뉘앙스를 갖게되는 것이 이때문이다.

레이건은 이번 교서에서 폴란드사태가 악화할 경우 소련에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있다.

제네바에서의 외상회담은 소련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폴란드사태로 예상의 2배이상이란 긴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회담은 다음회담의 날짜도 정하지 않고 끝났다. 미국의 헤이그국무장관에 의하면『조건이 허락할 경우에만 핵무기제한협상에 응할것』이라고 한다. 이는 폴란드사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워싱턴이 구상하고있는 앞으로 1년동안의 행동방향을 암시해 주고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사태는 우선 핵군축문제에서 미국쪽에 상당히 유리한 여유를 가져다줬다는 계산을 할수있다.

유럽의 反核운동은 폴란드의 군사통치규탄으로 바뀌고, 서방세계의 좌파세력에 심각한 분열위기를 몰고왔다는 계산이다.

레이건행정부는 5년동안 1조5천억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풀어 전략군사력의 강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미국안에서도 상당히 편해졌다고 판단하고있는것 같다.

전후최대의 실업자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위「레이거노믹스」라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밀고갈 작정임을 강조하고있다. 세금을 깎고, 또한 정부지출을 줄이기위해 사회복지예산을 깎는다는게 그 골자다.

연두교서는 미국의 불경기가 그렇게도 깊은데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풀릴것이라고 장담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건행정부의 계산이 하나에서 열까지 순탄하게 나갈지는 장담할수없는 일이다.

83년부터 유럽동맹국에 5백72기의 신형 크루즈·미사일등을 배치할 전략핵군비계획이 앞으로부터의 반대압력을 쉽게 처리할수있게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에 대한 이 이상의 경제제재가 그리 쉽지않으리라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이어 프랑스가 소련과 가스구매협정을 맺었다는것만 봐도 미국과 유럽맹방사이의 입장의 차이를 알수있다. 폴란드카드의 한계점의 하나다.

지난19일 열린 對공산권무역통제위원회(코콤)에서『미국의 곡물수출금지만이 유일한 실질적 경제제재가 될것』이라고 맞선 유럽각국의 입장을 기억하지 않을수 없다.

레이건의 연두교서는 무엇보다도 올해 하반기가 오랜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고빗길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있다. 그것은 미국뿐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세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회생을 뜻하는 것이다.

금년도 하반기가 국제경제의 회복기라는 것은 권위있는 국제경제기관들의 일치된 예측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예측이긴하지만 우리도 이 조심스런 예측에 조심스런「도전」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것이다.

레이건행정부의 성패도 제네바의 군축협상보다는 이 발밑의 불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는 것이다.

政局往來

民韓…黨職改編앞두고 갖가지 루머와 臆測滿發

◆平生同志發刊광고수입으로충당 — 民正黨은 27일 研修黨員用 教材인「平生同志」제7호를 20페이지로 增面확대하여 20만부를발행, 각지구당에 配布。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의 創黨1주년 기념致辭와 국회에서의 國政연설을 특집으로담은 제7호는「소속지구당과 黨員간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는가」,「연수받은 내용을 실천하는데 애로는 무엇인가」라는 2개항의 설문을두어 回信하도록 하고있다.

이번호는 4페이지에 걸쳐 광고를 처음으로 실어 注目을 끌었는데 7호발간에 들어간 9백60여만원은 모두 廣告수입으로 充當했다고。民正黨은「平生同志」를 통해 黨費납부를 강조하면서 책임당원및 활동당원의 黨費가 月1백원에서 2백원이상으로 인상되었다고 告知한뒤 모든당원은 黨費규정에 재시된下限線「이상」을 내는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은근히「규정이상의 黨費」납부를 종용했다.

◆人事란 시간문제 雜音나 — 民韓黨의 일부에서는 최근 黨職개편과 관련하여 柳致松총재가 黨職개편의「뚜렷한 방향」을 제시했는데도「請託性」내지는 마타도어性 루머들이 계속 나돌고있어 注目. 柳총재는 그동안『常識線을 벗어난 인사란 있을수 없는것』『變化없는 개편이란 하지않음보다 못한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현상속에서의 變化를 추구할것」을 示唆했는데도 일부人士들은 계속「全面개편」을 전제로한 臆說과 推測을 퍼뜨리고 있는 상태。

더구나 이들 루머중에는『地域按配의 利를 얻기위해 어느道출신의원들이 모여서 團合대회를 가졌다』느니『어느 실력자가 談合을 했다』느니『××의원은 곧 다른 방향으로의 이탈을 열심히 뛰고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柳총재의 측근은『拂拭시켜야할 遺弊』라고 개탄하면서『인사란 시간문제이지만 쉽게 잡음이 나게 마련이라 총재의 고민도 이해할수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金국민당총재 63회생일맞아 — 金鍾哲국민당총재는 27일 弘濟洞자택에서 63회생일을 맞아 黨간부들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었으나 黨간부들이 들어닥치고 民韓黨의 柳致松총재와 高在淸총무가 축하花盆을 보내오는 바람에 부득이 生日파티를 조촐히 차렸다。黨간부들은 이날 상오 金총재가 올해 생일을 쉰다는 정보를 입수, 총재댁으로 몰려와 金총재의 회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金총재는 26일 기자회견에 대해『내용도 좋았다』고 비교적 자평。黨의 한관계자는 柳총재와 高총무가 화분을 보내온데 대해『과거 金총재와 의원생활을 같이할때 金총재가 음력을 쉰다는것을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나름대로 추측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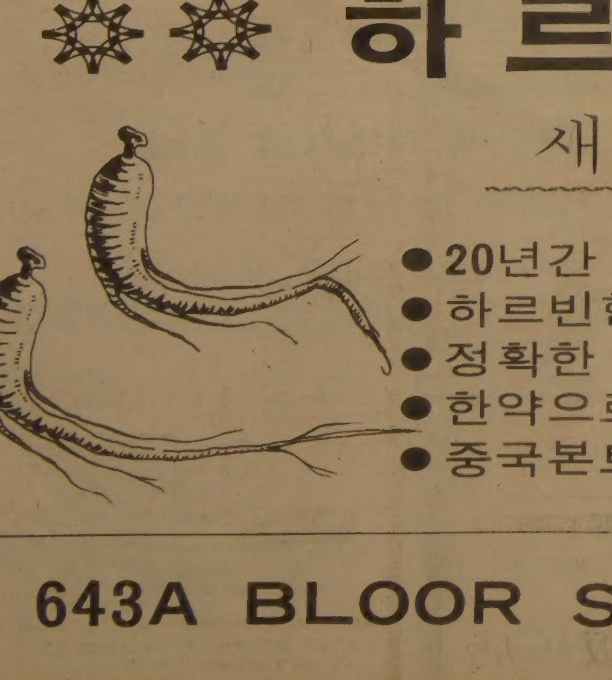
◆무우뽑아와政策陣容강화돼 — 民正黨의 정책위의장단과 새로 陣容을 갖춘 정책조정실팀은 27일 黨의 見禮를 겸한 午餐모임을 갖고 黨의 정책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것을 다짐。

이 자리에서 羅碩昊정책위의장은 黨政협조를 바탕으로 올해는 政策開發의 해가 되도록 분발해 줄것을 당부했고 朴鉉兌정책조정실장은 정부처의 노란자위들을 무우뽑듯이 쏙쏙 뽑아왔기 때문에 정책조정실이 크게 강화됐다』면서『앞으로 더이상의 전문위원 補強은 없을테니 이제 안정을 찾아 정책개발에 주력할때』라고 역설했다。

政策委는 이날 전문위원들의 담당분야를 재조정, 文公(高貴男)外務(尹盛)國防(金忠微·李良熙)은 두사람씩 담당하고 法司(韓元道)內務(金重緯)財務(韓容錫)經科(金茂龍)農水産(柳鍾卓)商工(金喆壽)保社(沈國茂)建設(金正均)등은 1명씩 맡기로 확정。그런데 이들 전문위원가운데 최근 局長으로 있다가 발탁된 본인이나 소속부처장관도 발표직전에야 알았다고。

◆워커美대사 歸國:老母 생일때문 —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가 본국정부와의 政務協議를 위해 빠르면 週末께 일시 귀국할 예정。워커대사의 歸國은 지난해 8월 부임한후 처음으로 外交街에서는 흑시 全斗煥대통령의「總選민주통일방안」에 관한 美행정부와의 協議와 관련이 있는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대변인은『본국정부와의 정규적 政務協議를 위해서 일뿐이며 老母의 생일을 맞게될 86세되는 귀국이유를 설명하면서 고『제발 억지추측은 삼가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편 워커대사는 26일저녁에 서울赴任후 美國의 전통적인 對韓정책을 學者出身답게 一體性(Integrity) 獨立(Independence) 保全(Identity) 重要性(Importance) 등「4I」로 풀이하여 눈길을 모았다.

✡✡ 하르빈한약상사 ✡✡
새해교민께특별봉사

●20년간 한의사경력(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하르빈한의대학 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중국본토의 한약사용

서 춘 봉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536－6854(B)
743－0752(R)

聯邦政府「減量」선언

―레이건 年頭연설 美國영웅주의 强調

"對蘇강경책 밀고 나간다" 「政治演技」등 자신감 넘쳐

본래의 經濟정책 국민들에 크게설득

【워싱턴26日曺溪煥특파원】「공급의 경제」를 재강조한 미행정부의 경제회복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들의 상당수도 27일있었던 레이건의 연설이 자신감에 넘쳐있었으며 국민들에게 우선 호소력이 있었던것이라고 논평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연설의 말미에서 『영웅들을 찾기 위해 역사책을 펼칠필요는 없다』고 말하여 미국의영웅들과 미국인의 긍지를 찬양했다.

『바로 2주전 포토맥江의 참담한 비극의 와중에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구조하는 구조원들의 영웅주의를, 한 여인이 구조헬리콥터의 끈을 놓쳐버린 것을 본 젊은 정부고용원 래니·스커트니크가 물속으로 잠수하여 그 여인을 안전하게 구조한 영웅주의를 보았다』

41분간의 연설중 박수가에서 가장 열렬한 이대목에서 터져나왔다. 레이건은 열관적인 박수가 터져나올것을 예상이나 한듯 스커트니크부부를 연설장에 특별초청해 두었다. 스커트니크부부가 그칠줄 모르는 박수를 받아 일어서자 만장의 의원들과 정부고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이 영웅부부를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레이건은 만족한듯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정치도 영화나 연극처럼 관객이나 청중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레이건이 포토맥江의 구조영웅을 그의 연설중 찬양한것은 비길데없는 훌륭한 정치연기였다.

레이건은 연두교서에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8·9%의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국민들과 의회의원들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그의 자신에 찬 연설과 미국영웅을 송상하는 국민감정에의 호소로 장미빛으로 물들이려했다.

레이건은 『나는 미국납세자들의 지원으로 예산의 적자를 메우려고 당신들에 요구하지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83년도 예산에서 적자가 1천5백억달러로 늘어날것을 추산, 레이건재무장관등 대부분의 경제보좌관들이 술, 담배, 휘발유에 고율의 물품세를 부과할것을 권유했으나 레이건이 작년도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기위해 거부한것을 말한다.

이것은 더이상 고수한 동요없이 그대로 다시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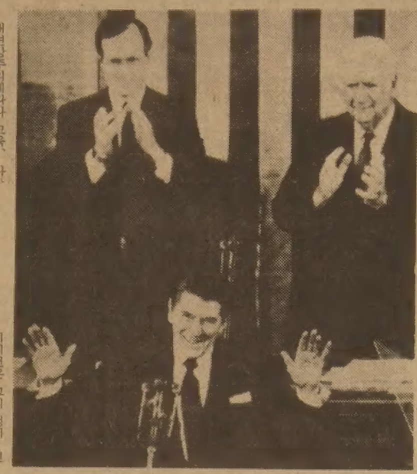
레이건은 대통령선거운동때부터 적으로 물고온비대한 연방정부를「새연방주의」이름아래 축소할것을선언했다.

새연방주의에 따라 교육, 지역발전, 수송및 사회봉사등 40가지가 넘는 연방정부계획이 주정부와 지방행정에 8년간에 걸쳐 이양된다.

레이건은 그밖에도 對소강경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소련제국이 어떤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것이 출발점이다. 윈스턴·처칠은 소련과의 협상에서 소련이 다른나라를 다룰때 힘과 결의만을 존중한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레이건은 말했다.

레이건은 그의 정치1년에 그의 정치스타일에는 공감하나 정책에는 회의를 품기시작한 미국인들에게 미봉책을 제시하기보다 본래의 경제회복 정책에 따른 착실한 장기적 결과를 기다릴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 셈이다.



◇환호에 답례하는 레이건 연두연설을 위해 국회의사당하양원의 연단에 오른 레이건 대통령이 상의원들의 환호를 받고있다. (뒷줄은 부시부통령(左)오닐하원의장(右)) 【워싱턴26日UPI=聯合】

美·蘇외상회담 無成果

美 波위기協議는 성공

헤이그·그로미코會談

【제네바26日AP UPI=聯合】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26일 소련外相 안드레이·그로미코와 7시간40분간에 걸친 양국 外相회담을 마친뒤 『폴란드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군축으로부터 두바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날 토의된 모든문제의 진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2배이상 길어진 이날 外相회담에서는 그로미코가 폴란드문제토의를 거부하겠다는 앞서의 위협을 철회함에따라 폴란드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것으로 보여지는데 회담후 헤이그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폴란드문제에 관한 토의가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이문제를 장시간 거론했음을시사했다.

헤이그장관은 또 군축문제에 언급, 『조건이 허락할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이 새로운 전략핵무기제한협상에 응할것』이라고 말해 폴란드위기와 소련의 폴란드개입이군축협상을 가로막고 있음을분명히했다.

美·蘇 頂上會談등 불응

【제네바27日AP=聯合】폴란드사태가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계를 계속 저해하는한 레이건대통령은 美·蘇정상회담이나 전략무기제한협상에 응하지 않을것이라고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이 26일 제네바회담에서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에게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美·蘇외상회담에 관계하고있는 美대표단의 소식통들에의해 밝혀졌다.

소식통들은 지난달13일의 폴란드계엄선포이후 美·蘇간 최초의 고위급접촉인 이회담에서 헤이그장관이 그로미코외상과 가까운 장래에 다시 대좌할 가능성도 배제했다고 전했다.

헤이그장관은 그로미코외상과의 회담목적은 『美·蘇관계의 개선에 있는것이아니라 주로 폴란드문제에관한 우리의 관심을 아주 분명하게 표명할 기회를 갖기위한것』이었다고 말했다.

蘇2人者 수슬로프 死亡

黨中央委서기 최고理論家

올해로 79세…死因심장병

東歐 자유물결 沮止 앞장

【모스크바26日AP=聯合】蘇聯共産黨 제2인자이자 최고이론가인 黨중앙委서기겸 정치국원 미하일·수슬로프(79)가 25일밤(현지시간)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蘇聯관영 타스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蘇聯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인물인 수슬로프가 중병으로 인해향년79세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 고위소식통은 수슬로프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의일종이었으며 25일 중태에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건강악화설이 나돌던 수슬로프는 2주전 요제프·치레크 폴란드외상과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슬로프의 사망은 그가 특히 지난41년부터 黨중앙위원에 기용됐던 黨원로이며 黨의 2인자였다는점에서 레오니드·브레즈네프 共産黨서기장(75)의 후계자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것으로 예상된다.

蘇 軍事力으로 超強國 유지

日국제문제研 評價報告書지적

經濟성장희생、강경政策

"80년대末되야 武器조달률 減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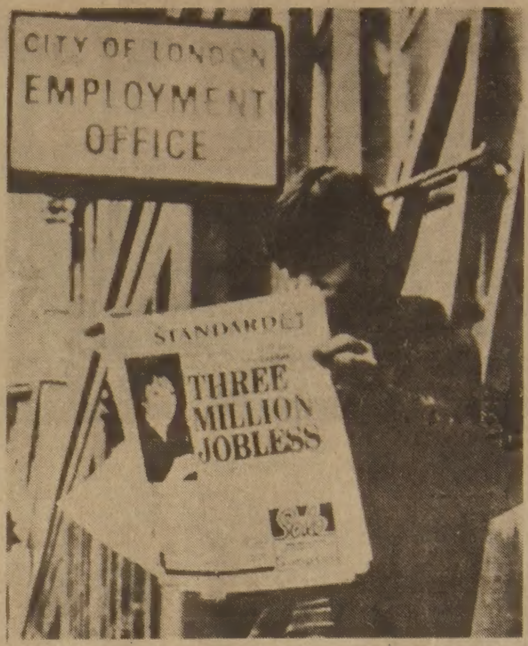
【東京26日聯合】소련은 세계초강대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년동안 군사력에 보다더 의존하지않을수없게 될 것이라고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가 26일 지적했다.

「소련의 포괄적 국력에 관한 평가」라는 제목의 이 연구보고서는 그러나 소련이 악화일로의 경제문제때문에 80년대말경에는 군사력증강의 속도를 늦추지않을수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련의 안정에 관한 경제·과학·사회적지표의 포괄적 분석을 요청한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연구보고서는 소련이 군사력증강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수있는가 그리고 소련이 극동·太平洋및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가의 두가지 주요문제를 중점적으로분석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소련이 현재의 군사적 권위실태를 장래의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는 특유한 경제정책을 추구하고있으며 지난70년대말 5%이던 무기조달증가율이 7~8%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人的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소련의 軍事費지출증가율이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을 능가, 연평균 6.5~7%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악화된 경제로 인해 앞으로 10년간의 후반기에는 무기조달증가율을 4%수준으로 낮추지 않을수없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失業者 3백만뉴스… 미국의 한젊은이가 런던市직업소개소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英國의 실업자수가 3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우울한 기사를 읽고있다. 【런던26日AP=聯合】

蘇、페灣자원 奪取가능성

크렘린서 命令하면 순식간에强占

【웨스트팜비치(美플로리다州)26日AP=聯合】군비의 質量면에서 對서방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소련은 페르시아灣국가들로부터 에너지자원을 탈취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미국의 한저명한 과학자가 25일 경고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알려진 에드워드·텔러 박사는 이날 웨스트팜비치에서열린 한 과학자모임에서 이같이 말하고 크렘린지도층이명령을 내리면 페르시아灣국가들이 차례차례 점령될것이라고 강조했다.

蘇·埃관계 回復단계에

"전면적 正常化는 아직 없다"

埃관리 "好意的분위기"

【카이로26日UPI=聯合】蘇·이집트관계는 지난72년이래 疏遠해 왔으나 이제 호스니·무바라크 대통령의 집권아래서는 解氷의 조짐을 보이고있다고 26일 이집트외무성관리들이 말했다.

외무성관리들은 그러나 이집트는 양국관계의 전면적인 회복을위해 현재 성급하게행동하지는 않고있다고말했다.

관리들은 『현재 카이로와 모스크바 사이에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관계정상화를 위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중요조처가 취해진것은 아니며 『이집트는 이문제를 서서히 다룰것』이라고 말했다.

무바라크대통령의 對蘇화해정책에이어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의 소련기술자파견요청발표 ▲蘇聯이 애스완댐수력발전소의 터빈수리에 합의했다는 마헤르·아바사동력상의 공식발표 ▲니콜라이·티호노프蘇聯수상이 푸아드·모히에딘이집트수상에게 양국관계정상화를 요청한 내용의전문발송등으로최근 양국관계는 분명히 해빙의조짐을보이기시작했다.

戒嚴실시·改閣승인

波議會 이틀간 會議후 休會

【바르샤바26日AP=聯合】지난해12월 계엄령선포이후 처음으로열린 폴란드의회는 26일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정부의 계엄령실시를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하는한편 정부의 소폭적인 개각과 교사의 사회적지위에관한 법안을 승인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해 27명의 지식인·작가및 예술가들은 계엄령에대한 새로운 항의서한을 발표, 국민들의 자유박탈을 중지하고 구속자전원의 석방과 구금장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4백60人의회는 이날 폴란드정부수반이며 軍통수권자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이 25일 행한 연설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제한을 골자로한 4개항의 계엄령을 찬성 4백5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써 지난16개월동안 계속되어온 자유화운동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메아리

하오5시10분 會議場壇上의 서쪽끝에 앉은 西獨의 슈미트首相이 署名을 하기 시작하여 등족 맨 끝의 유고 大統領 티토가 사인 펜을 놓기까지 1백10페이지에달하는 방대한「헬싱키 最終議定書」에 東·西歐 35개국 首腦가 차례로 署名을 마치는데는 꼭 35분밖에 안걸렸다.

議長인 케코넨 핀란드 大統領이 署名終了를 선언하자 35개국 수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그에 이어 會議場내의 모든 參觀人들도 起立하여 박장을 쳤다. 메아리子도 쓰던 펜을 놓고 일어서서 힘껏 박수를 보냈다.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그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地球의 東西를 갈라놓은 높은 障壁을 넘어 이 우렁찬소리는 길게길게 널리 울려 나갔다. 歡聲대신…. 1975년8월1일, 헬싱키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날「歐洲安全保障·協力會議」(CSCE)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는「헬싱키精神」이라고 일컬어지는 平和維持에대한 35개국의 意志를 담은것으로 具體的인 行動措置를 署名國들에게 要求하고 있다.

이문서는「歐洲의 안전보장」「경제·科學技術및 환경분야의 協力」「인간·情報·文化·敎育의 교류확대」「회의결과에대한 검토를 위한 조치」등 4개의 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첫째의「歐洲의 안전보장」項중 後段에는 軍縮과 安全保障에 관한 信賴措置로서 軍事演習의 사전통고제、軍事視察團의 상호교환、또 軍事移動의 사전통고등을 규정하였다.

즉「兵力이 2만5천명을 넘고」「國境2백50km以內」에서 행해지는 軍事演習은「演習開始21일전에 통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相互主義원칙에서 상대방에 대해 演習視察招請을 하고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며、信賴증진의 배려에서「大規模的인 兵力移動」을 사전에 통고토록 하였다.

「板門店 정신」

그러나 그후「헬싱키精神」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強占、폴란드에서의 自由化彈壓으로 크게 흔들렸으며 東西간 軍事的緊張은 오히려 완화보다 높아지고있는 지경이다. 헬싱키議定書의 履行實態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檢討會議」는 베오그라드의 제1차회의후 줄곧 미루어져오다가 오는2월9일에야 가까스로 제2차회의를 마드리드서 갖게되었다.

최근 板門店에서 유엔軍側은 南北間의 군사연습 상호참관을 제의하였다. 또하나 東西대결지대에서의 긴장완화와 상호信賴조성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全世界가 박수를 칠「板門店精神」本領의 구현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을까?

인사이드

브레즈네프後繼는

수슬로프死亡…蘇 권력에 큰空白

◇미하일·지미아닌 ◇미하일·수슬로프 ◇보리스·포노마레프

브와 同業者로 代父역할

13명경합 지미·포노마레프 浮上

權力이양 不確實性 남겨

【모스크바26日AP=聯合】蘇聯共産黨의 제2인자인 미하일·수슬로프가 갑자기사망으로 소련권력구조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것은 물론 75세의 고령인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후계자선정에도 큰 혼란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서방관측통들과 소련전문가들은 수슬로프가 소련공산당의 최고이론가로서 크렘린 정책수립에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지적, 그의 사망에 따른 권력층내부의 혼란과 충격이 상당기간 계속될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브레즈네프 공산당서기장겸 간부회의의장보다 4살이 위이면서도 건강이 훨씬 양호했던 수슬로프가 브레즈네프의 사망후 후계자 선택과정에서 결정적이고도 代父的인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되어왔던 만큼 그가 갑자기 사망한 현재로서는 13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누가 순조롭게 권력이양을 하게될지 장담할수 없다는 분석을 내리고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브레즈네프와 수슬로프에 이어 소련권력서열 제3위의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안드레이·키릴렌코의 위치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브레즈네프의 비길수없는 후계자로 부상되었다고 지적하고있으나 그의 건강역시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 후계자선정과정이 순조롭지 못할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蘇聯軍의 아프간침공과 폴란드국내탄압등 소련의 강경한 對外정책을 주도해온 수슬로프의 사망은 브레즈네프의 강력한「동업자」를 잃은격으로 비교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타스통신이 수슬로프의 사망을 즉각 보도한 이후에도 수시간이 지나도록 국영라디오와 TV가 이에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못한 사실에서도 브레즈네프와 동지들의 충격이 그만큼 컸던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사실 악화된 건강에 시달리고있는 브레즈네프는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최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슬로프에게 전폭 이양해 왔던만큼 브레즈네프 자신의 후계자선정을 제외하고도 아프간 침공과 폴란드 국내탄압에 따른 어려움이 산적해있는 이때에 수슬로프의 역할을 대행할수있는 후계자문제도 큰문제거리로 남아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슬로프의 측근이자 정치국후보위원인 보리스·포노마레프(76)가 조만간 정치국원으로 선출되는 동시에 수슬로프의 업무를 인수할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그의 후계자는 黨서기인 미하일·지미아닌(67)도 지목되고있다고 지적되고있다.

수슬로프의 역할이 소련의 對內外정책에서 뚜렷했던것만큼 그의사망은 소련의 권력구조및 각종정책수행과정에 예상할수없는 불확실성을 남겨놓은셈이다.

中共、漢字개혁推進결정

【北京26日UPI=聯合】중공은일부 언어학자들의 반대에도불구, 현상황한자를 간소화하거나 로마자화하는 문자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중공당기관지 人民日報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중앙위서기겸 사회과학원 주임 胡喬木의 말을 인용, 중공이 문자개혁의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다짐했다.

胡는 중공문자개혁위원회에서의 한 중대연설을 통해 한자간소화를 위한 기본공식을 완성하기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난해하고 복잡한문자를 간소화하는것은 전신과 컴퓨터처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海外토픽

天人共怒할 殺人劇

★멕시코서토막屍體12具발견

【파추카(멕시코)AP=聯合】멕시코 시티의 오물을 툴라江으로 쏟아버리는 하수도관에서 12구의토막시체들이 흘러나온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사망자들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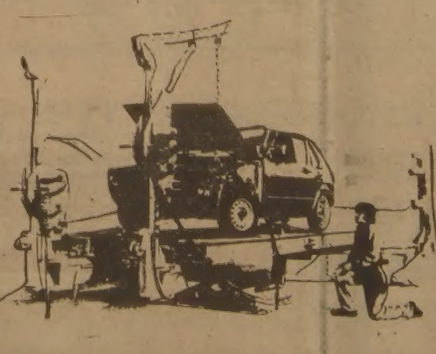
20대와 30대청년층인 이들은 멕시코시티의 거대한 하수도망가운데 어느 음침한입구에서 한꺼번에 내버려지기 직전 타살되거나 0.38구경 또는 9mm권총으로 사살됐다고 수사관들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팔목을묶였고 눈알은 뽑히거나 담뱃불로 태워져있었다.

악취가 풍기는 강둑에서 놀던 시골어린이들이 멕시코시티 북쪽 90km지점의 이달고州에 있는 높이12m의 하수도관으로부터 툴라강으로 흐르는 흙탕물속에서 너덜너덜한 시체토막을 발견한것은 지난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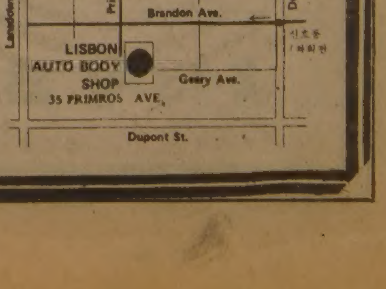
신년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유능한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1백1g에서 2백75g까지

불고기 1人分量 業所따라 큰 差異

소비자연맹 서울·仁川39개소調査서 밝혀

「음식점에서 불고기를 시켜먹을 때마다 이집은「고기가 너무적다」「3인분이 2인분보다 왜 적으냐」는등의 불평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음식점의 불고기를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한국소비자연맹(회장 鄭光謨)은 작년12월서울과 仁川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1인분 불고기의 무게와 가격, 위생상태등을 조사했는데 1인분 불고기의 양은 같은 음식점에서도 들쭉날쭉이어서 소비자들의 불평은 근거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각음식점마다 불고기의 1인분무게를 표시해야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따라 서울·仁川의 이름난 불고기집과 대중음식점 39개소(서울31·仁川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2명~4명으로 팀을짠 물가조사원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불고기를 시켰고, 주문한 불고기가 나오면 다시 추가분을 시켰으며, 추가분이 나오면 음식점측에 취지를 설명하고 합석한 자리에서 무게를달아본후 서명을받는 방법을 택했다。이런식의 조사에서 무게가 현저하게 적은곳은 재조사를 실시했다。

각음식점은「불고기 1인분」의 무게를 대개 2백g인(양념포함)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주방장이나 종업원들이 어림짐작으로 고기를 덜어내놓고 있기때문에 1인분의 무게는 같은 음식점안에서도 큰차이가 났다。1인분의 무게가 2백g이 넘는곳은 서울의경우 31개소중 7개업소(22%)뿐이었으며 나머지 78%는 2백g을 훨씬 밑돌았다。

심한곳은 1백50g도 안되는곳이 있었다。이에비해 仁川은 고기의 양이 많은편이어서 8개소중 6개소가 2백g을 넘었고, 3백g이 넘는곳도 있었다。양념만을 따로 떼어내고 달아본결과 1인분의 양념량은 10g~1백42g으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소비자들은 보통『4·5人分을 한꺼번에 시키는것보다 1·2人分씩 시키는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이러한 추측이 맞는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처음에 시키는 1인분보다추가로 시키는 1인분이 대부분 양이많았다。한 음식점은 첫1인분이 1백21g이었으나 추가로시킨 1인분은 204g으로 거의 2배나 차이가 났으며, 추가로시킨 2인분이 1인분보다 적은곳도 있었다。

조사대상이었던 39개소중 양념을 제외한 고기의양이 가장적은곳은 서울의「종로한일관」으로 101g(양념포함 1백66g),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여의도 해운대갈비집」으로 2백75g(양념포함 3백g)이었다。

가격은 불고기1인분이 2천원~2천2백원이었으며 불고기 10g당 가격은 87원~2백97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팀들은 주방의 위생실태를 둘러보았는데 종업원들의 복장이 깨끗치 못하고 특히 머리처리를 잘못하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또한 주방마다 바퀴벌레가 많고 쥐가 들락거리는 곳까지 있었다。불고기를 담는 접시, 밥상, 방석, 방바닥, 도마등도 불결한곳이 대부분이었다。종이 냅킨도 형광색소가 많이 검출되는 저질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소비자연맹은 조사를 끝낸후『각음식점은 가격표시표에「불고기1인분 ○○g ○○원」이란 것을 명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비빔밥, 설렁탕, 냉면등 한그릇에 담겨나오는 음식과달리 1인분, 2인분등을 덜어서 내놓아야하는 불고기를 주방장의 손짐작에 의지하여 팔고있다는것은 시정해야될 일이기도 하다。

◇음식점 종업원과 함께 불고기 무게를 달아보고있는 소비자연맹 물가조사원들。

서울 定量넘는 곳은 겨우 7개업소뿐
仁川은 후한 편…6개소가 2백g 넘어
업소 거의가 追加分이 훨씬 많아

◇불고기 무게 조사결과

(81년12월 소비자연맹조사)

상 호	불고기1인분(g) 고 기	양 념	가 격(원)	전체무게	소 재 지
종로한일관	101	65	3,000	166	종로구 청진동
거구장	121	69	2,800	190	중구태평로2가
명동한일관	135	10	3,000	145	중구 명동2가
달동네	136·5	58	2,800	194·5	영등포여의도동
향원	150	26	2,500	176	중구충무로2가
롯데관광 이조한식집	151	36	3,000	187	롯데관광식당가 9층
이학	155	89	3,000	244	중구 명동2가
영복회관	155·3	42	2,200	197·3	영등포5가
금강산	162	26	2,700	188	중구 명동2가
배나무집	163	2	2,500	165	종로구 평창동
진고개	164	46	2,600	210	종로구 창신동
명동불고기센타	169	7	2,200	176	중 구 명동2가
성산면옥	170	31	2,000	201	마포구 성산동
거북정	170	25	2,100	195	중구남산동1가
우래옥	172	파세쪽	3,200	172	중 구 주 교 동
평창면옥	177	24	2,800	201	종로구 평창동
부일갈비	179	54	2,500	232	영 등 포 2 가
푸른집	184	29	2,500	213	종로구 평창동
우래정	187	10	2,500	197	영 등 포 2 가
성산회관	191		2,500	191	서대문구연희동
국일관	194		2,800	194	중 구 북창동
옥돌집	195		2,400	195	도봉구하월곡동
경인장	198	56	2,000	254	영등포동 4가
장유정	198	15	2,300	213	중구 저동 2가
서린정	205	19	2,300	224	성동구 송정동
일역회관	208	27	2,500	235	중 구 북창동
석산정	213	파세쪽	3,000	213	중 구 산림동
청기와집	229	69	2,000	298	성동구 송정동
대원집	232	50	2,200	282	성북구 동선동
영양사	252	33	2,200	285	성북구 동선동
해운대갈비	275	25	2,600	300	영등포여의도동
인천장	112	76	2,200	188	중 구 인현동
평창옥	175	4·6	2,300	179·6	중구신흥동3가
장원갈비	212	9	2,300	221	남 구 도화동
인천장호정	215	50	3,000	265	북 구 부평5동
부일갈비	231	23	2,500	254	남 구 도화동
해운대갈비	239		2,500	239	남 구 숭의동
선인장	239	142	2,100	381	남 구 간석동
반도불고기	270	110	2,500	380	남 구 도화동

※「인천장」~「반도불고기」는 仁川소재

日本여성들에 재즈댄싱 熱風

교습소 東京에만 3백여곳
中年層에 人氣… 몸매 가꿔

日本여성들 사이에 재즈댄싱(에어로빅·댄스)의 열풍이 일고있다。지난 한햇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한 재즈댄싱 교습소가 東京에만 3백개가 넘고 日本에서 가장 규모가큰 이꾸꼬·가네미스 모던댄스교습소엔 자그마치 1천3백명의 학생들이 재즈춤을 배우고 있다。

재즈 댄싱이 日本여성들사이에 붐을 이루게 된것은 최근 日本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美國의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앨빈·에일리무용단과「재즈의 모든것」「페임」과 같은 뮤지컬영화가 공전의히트를 하면서 부터다。

이꾸꼬·가네미스 댄스교습소소장인 이꾸꼬女史(52)는『일본여성들은 아직도 서구여성들에 비해 수줍음을많이 타지만 일단 교습소에 와서 춤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주 대담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로 보낸후 TV를보거나 캔디를 먹는일이 고작인 일본여성들이 운동도 하고 몸매도가꿀수있는 재즈댄싱에 관심을갖는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디스코와 상업성이 강한 모던댄스가 여전히 강세를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즈댄싱이 대중에게 파고들수있었던 것은 몸에 착달라붙는 타이츠를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몸에 꼭 달라붙는 타이츠 입기를 좋아하고 또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츠를입음으로써 더 날씬해지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재즈댄싱이 점차 인기를끌게되자 각기업체에서까지 여사원들을 위한 재즈댄싱강습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봄에 잠깐 피었다 지는 벚꽃만큼이나 변덕이 많은 일본에서 재즈댄싱이 얼마나오래 인기를 끌게될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다。

그러나이같은생각도차츰변화하여한고등학교야구코치가 70명의선수들에게리듬감각과 스피드를 늘리기위해 재즈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점차 그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재즈댄싱은 특히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있는데 도시생활의 긴장을 풀고 몸매도 가꾸는데는 재즈댄싱만큼 효과적인 방법이없다는게 그 이유다。

【東京AP=聯合】

女子의 마음

女子의 이름

우체부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 반가와 밖으로 나가보니 3통의 편지가 왔다。겉봉에쓰인 수취인 이름을보니 하나는 남편의 이름으로, 하나는 아들이름으로, 또 하나는 내이름으로 온것이었다。보낸사람의이름은 3통 모두가 낯익은 내친구들의 이름인데 말이다。반가운 마음으로 단숨에읽어본뒤 하나씩 제 봉투에 넣으면서 다시보니 내이름 석자가 의외로 낯설다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작은소리로 내이름을 불러보았다。그러다보니 문패에 새겨진남편의 이름이 아닌 내이름이 적힌 편지는 가끔 주인을두고도 되돌아가곤하던 생각이 났다。

언젠가 TV노인프로에 나오신 할머님께 아나운서가 성함을 여쭤보니『들어본지도 써본지도 너무 오래되어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 말씀이생각났다。우리 젊은이들은 어떤가。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 성함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많지 않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여자의 이름이 불리어 지는 것은 시집가기 전뿐이다。유명한 여류명사가 되기전에결혼과 함께 이름을 잃어버리고만다。태어나서「아가」로 불리다가 여학교를 다니는 동안「정숙채」로 불려지던 내 이름은 졸업후 사회에 나오니「미스 정」이 되었고 그 다음 결혼하니「새댁」이 되었다가 지금은 또 바뀌어「세진이 엄마」가 되었다。이러는동안 나자신에게도 내 이름이 생소해질 지경이 되었으니 참 쓸쓸한 마음이 든다。

이제 훗날 할머니가 되면「○○할머니」로 바뀔것이고 그다음에는 다른 호칭조차 없겠지…그날 친구들에게 보내는 답장에 나는 이런 기분을 적었다。그리고 겉봉에는 문패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외에 또따박 친구의 정다운 이름을 적었다。내편지를 받는 친구들의 기분도 아마 나와 같으리라。

【정숙채·경기도김포군계양면동양2리 군인관사4호】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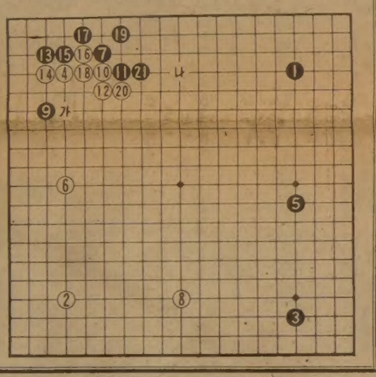
第12局 第1譜 1~21 (각5시간 덤5집반)

白 (6段) 姜 哲 民 〈0勝3敗〉
黑 (4段) 鄭 壽 鉉 〈1勝2敗〉

오랜만에 名人戰에 복귀한 姜6단은 본의아니게 연속 3패를 기록하여 시드 組탈락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그야물론 棋士로서 勝負의 시기는 으레있는법이고 본인또한『허허 또졌구나』는 식으로 언제나 무척 담담하게 웃어넘기면서 바둑을 두는자체에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오늘 이한판만은 老將의 체통을 생각해서도 놓치지 않을요량 같다。

한편 鄭4단은 徐能旭6단에 이긴 뒤 역시 2패를 기록하여 이판이 시드組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고비로 되어있다。

대학생으로서 학교공부도하랴 바둑도 연구하랴 굉장히 바쁜생활인데 그걸 용케 견디어내는 이색적존재이다。棋風을 평하는 이가 없는 모양이지만 鄭4단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 그



白、여전한 勢力作戰

지금 현재는 棋理에 밝고 온건한수법을 구사하여 靑少年 중견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바둑에서는 姜6단 능기의 세력작전을 사전에 봉쇄할 생각이었는지 黑1、3、5의 中共式布石을 들고나왔다。姜6단은 白2、4에서 6의 3連星布石。마치 화점자리를 비워두기가 아깝다는듯이 白8쪽마저 차지해버렸다。

白8은 실상 중용식으로 세를펴는 黑의작전에 대항하는 점이기도하다。黑7에대해 白「가」면 黑「나」로서 이상적인 黑의大陣容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黑9의 양걸침으로 때이른전투다。白10、12는 黑13을당하여 白이불리한 정석이지만 姜6단은 3連布石의 白20까지 서슴없이 결정지어 버렸다。뜻을 관철하자는 생각으로 이하 白20

【一凡】

서울Y 정기총회
30일 새이사선출

서울YWCA는 30일낮12시 대강당에서 82년도 정기총회를 갖는다。이날 총회에서는 새해예산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7명의 공천위원을 새로 뽑는다。

女性소식

세계BPW會長 헤이스女史 來韓

전문직업여성클럽(BPW) 세계연맹회장인 맥신·헤이스여사가오는2월6일한국에온다。보험회사사장으로 美國오리건州 전크손市 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했던 헤이스여사는지난80년세계연맹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2월6일~9일 한국에 머물며「국제친선축률의식의 밤」등에 참가한다。

兩親의 銀婚式

나의 이력서

元一漢 ㊶

〈題字 元一漢〉

중국北京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宣川에서 하룻밤을 쉰 우리는 이튿날 沙里院으로 향했다。長淵 九味浦로 가기 위해서 였다。

北京行직행열차가 느릿느릿 달릴정도였으니 국내선은 말할것도 없었다。엉망이었다。沙里院에서 내려 바꿔탄 長淵行 지선열차는 15분 달리고 30분 쉴정도로 기관차의 고장이 잦았다。

굼벵이 열차덕분에 長淵역에 도착한것은 새벽 1시쯤이었다。일본경찰이 다가오더니 짐을 좀 조사하자고 했다。가방을 열어보는 정도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내용물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끝내는 아내가 北京서 산 백옥귀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그 귀고리에 태극무늬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음양의 표시로 이런 마크를 사용해 어디에서나볼수있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결국귀고리와 면도등을 압수한 다음에야 풀어주었다。한밤중에 長淵역 앞에 있는 여관에 들었다。

서울로 돌아올 때는 기차가 너무 고생스러워 자동차를 타기로했다。이것마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했다。그런데 자동차마저 조금 달리다가 고장이 났다。

경찰에 자동차 고장으로 부득이 기차로 바꿔탈 수밖에 없다고 말하니 안된다고 했다。한번 신고된 일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려고 밀치고 당기다가 길가의 조그만 돌멩이에 부딪혔다。그 충격으로 엔진이 걸렸다。

갑자기치른「서프라이즈·파티」

그해 12월8일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틀전인 12월6일은 우리부모의 결혼 25주년이되는 은혼식날이었다。

아버지는 시국도 뒤숭숭하니 손님을 초대할때가 아니라며 그날어머니와함께 자동차로 서울근교를 잠간 다녀오기로했다。

내가 신혼살림을 차린 집은 지금의 延世大총장 공관 자리였다。아버지와 어머니는 계획대로 근교나들이를 다녀온 다음 우리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동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은혼식날의 서프라이즈·파티참석자。앉은줄은 우리가족, 뒷줄은 손님들。

예상하지못한 많은 손님…더욱 즐거움

아버지는 장남이 초대한 저녁식사에 우리가족아닌 손님들이 오리란것을 조금은 짐작했으면서도 산책에서 돌아와『무슨 차들이 이렇게 와있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놀란사람은 어머니였다。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짐작도 못했으니까。우리집에는 아버지의 친구로서 역시 철수하지 않고남은 몇몇 선교사 부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파티(Suprise Party)였다。예상치 않은 파티였기에 더욱 즐거운 파티가 되었던 것이다。

「서프라이즈·파티」참석자는 아버지와 같은 선교사인 밀러 라이너커르목사를 비롯, 儆新학교교장 군스부부 유한양행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친구인 헤플러부부 그리고 장인내외등이었다。

이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 쌍동이 동생들이 은혼식 축하를 국제전화로걸어와서 서프라이즈·파티를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쌍동이 동생 요한과 제한은 나란히 뉴욕해밀턴대학을 나와 프린스턴神學大學에 재학하고 있었다。이날소식을 나누지 않았더라면서로가 안부를 몰라 한동안 안절부절못했을것이다。이틀후에 터진 전쟁으로 국제전화가 불통되고 말았으니까。이날 은혼식파티는 결코 잊을 수없는 서프라이즈·파티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일보 詩壇

겨울편지

朴柱官

당신의 입김으로 쓴 편지 받았어요
겨울속의 어두움이라 저애들이 못난 망둥이처럼
이산 저산으로 뛰어다닌다면요
피눈물 나는 다리(橋)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피가 흘러와 볼 수 있을것 같아요
새들이 날아갈때 마다 거대한 나무들이 숨어버리고
당신의 눈은 몇줄의 격문을 되뇌이지만
거기 그 자리에 있어도 당신은 이긴거에요
한장의 젖은 눈으로 눈으로 그 누구도 알아
몇십만 킬로의 길로가는 길위엔 계곡이 많아 무릎도 깨어지고 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보내준 고통속에 떨며 전해오는
몇 숨결만으로도 우리는 알아요
모두가 살아서 뛰어노는 그 노루처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함을 알아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⑧

목이하고 오목이하고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언제까지나 반신반의로 남겨놓고싶은 마음은 또한 오목이의 손목을 일부러 놓아 잃어버리고 난 일곱살적의 심리상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때 수지가 동생을 놓아버리고나서 한참만에 목메어 찾아헤맨 동생의 이름은 늘 부르던 오목이란 애칭이 아니라 가족간엔 거의 통용된 적이 없는 수인이란 호적상의 이름이었다。일곱살 먹은 계집애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않는 그 놀라운 기지(機知) 깜찍한 간지(奸智)에 수지는 훗날 문득문득 전율했다。

어떤 계기로 목이의 손목을 잡아보게됐는지까지는 생각나지않지만 목이가 오목이라면 필시 혈육간의 알림이 감전되어 오리란 미신적인두려움과 기대는 없지않았다고 기억된다。그런 기대때문에 그건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는데도 그녀는 그 차가운 손목이 따뜻하게 녹을만큼 오래 잡고있지를 못했다。감전이 될까봐 두려워서인것도 같고 감전이 안될까봐 두려워서인것도 같았다。그것조차 반신반의했다。

다만 목이조차 잃고난 지금 이상하도록 확실한 느낌으로 잠깐잡아본 목이의 가냘프고 차가운 손목과 일곱살적 일부러 놓아버린 동생의 손목을 같은 것으로 일치시키고 있었다。두개의 손이 그녀의 목을 조이고 마침내 일치하는 것처럼 그 느낌은 고약했다。

수지는 이런 악몽같은 상념에서 깨어나기위해 혼자있고싶었다。일어서는 수지를 사모님은 만류했다。

『선생님도 안만나뵙고 그냥 가려구? 선생님은 아이들 가있는데를 다 알고 계셔。취직자리도 고아원도, 목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수있을거야』

『다시 오겠어요?』

『말이 그렇지 다시 오긴 뭘와。그리고 우리가 이사갈 날도 얼마안남은걸』

『일간 꼭 다시 올겁니다』

수지는 남의 말하듯 말했다。다시 올것도 같고 안올것도 같았다。그것조차 반신반의했다。

여기저기 남아있는 고아원 말고는 이제 6·25의 상흔은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않았다。언제 그런 난리가 있었더냐싶게 사람들의 건망증은 신속하고 공기에 익숙하듯이 평화에 익숙해서 구태여 그걸 느낄 필요조차 없었다。

순수한 전쟁고아만 기르던「오누이의집」이 문을 닫는다는건 원장의사정도 있었지만 남보기에 얼추 닫을때도 됐다싶었으니 난리통에 잃어버린 동기간을 찾는일도 이제 그만큼했으면 일단락을지어도 무방할 세월이 흐른거였다。하는데까진 최선을 다했다고 남들에게떳떳하고 자신에게 위안이 될만큼 한셈이었다。

수지는「오누이의집」이 없어지는걸 그동안의 헛되고헛된, 아니 헛될것을 미리계산한 교활한 찾아헤맴으로부터 놓여날 절호의 찬스로삼을터였다。「오누이의집」을 등지고 경치좋은 언덕길을 걸어내려오는 수지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러나 버스종점이 가까와지면서 수지는「오누이의집」에서 놓여난게아니라 쫓기고있는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헛된 찾아헤맴이 남의 눈을 속일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비인간성에 대한 절망감은 일생동안 지울수 없을 것같았다。

종점까지 남아있던 몇안되는 손님중에 유원장이 섞여있었다。그때까지 버스를기다리고있던 수지는 유원장을 피할수 없게 되고말았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BIG SEVEN무역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533－7966 김 영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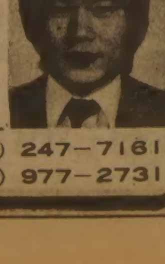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매매구인광고 : 박 경 옥
533－236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u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모로가도 서울만가면…"

高校자퇴…檢定考試派많다

"2百55점이면 內申1等級"노려

엉뚱한 副作用…都市학생에 流行

再修生도 무더기로 변칙應試

내신성적이 좋지않은 고교졸업생들이 불필요한 대입검정고시를 일부러 거쳐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유행이다. 이는 고교재학중 1~2학년때 성적이 나빴거나 가정 형편 또는 신병등으로 장기결석해 내신성적이 나쁜 졸업생들이 그뒤 실력은 향상됐으나 나쁜 내신성적을 만회할길이 없자 일부러 검정고시를 치르는것인데, 대입학력고사에서 2백55점이상만 따면 내신성적이 1등급으로되는 잇점을 노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재수생 뿐만아니라 좋은 내신을 기대할수없는 재학생들도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찾아들고 있으며 특히 내신성적 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부산등 대도시고교출신들이 많다.

내신성적원가의 검직성이 낮은 올해 입시의 엉뚱한 부작용의 하나인데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여서 안타깝다.

고교재학중 가정형편 또는 신병으로 학업을 포기했다가 검정고시를 치르는경우는 전부터 흔했으나 고교를 졸업한 재수생 또는 졸업예정자가 검정고시를 치르는 일은 있을수 없는 일인데도 대학입시에서 유리한고지를 점령하기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다.

문교부가 지난5일 각대학에 지시한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인 「등급별 학력고사점수」에 의하면 대입학력고사성적이 2백55점이상이면 1등급, 2백35~2백54점이면 2등급, 1백14점이하이면 15등급으로 나누어 내신성적을 주게돼있다.

문교부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기준을 올해대입학력고사를 치른 검정고시출신자들을 일반고교 내신성적등급비율에 따라 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정고시출신자의 경우 출신성적점수를 모두 1등급으로 인정받기때문에 재학생들보다 그만큼 유리하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내신기준이 재학생들처럼 고교단위로 환산된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산된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모인 서울·부산등 대도시 지역출신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보다 후한점수가 돌아가게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 학력고사성적에 따른 시·도별 내신등급을 학력비교해보면 전국평균을 고사2백54점이상이 1등급, 2백34점이상은 2등급, 2백20점이상3등급, 2백9점이상이 4등급에속한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2백63점, 서울은 2백60점, 제주는 2백58점이상이어야 1등급에 해당돼 대도시 수험생들은 기타지역 수험생에 비해 3점이상 손해를 보게된다.

이처럼 대도시출신 수험생들이 내신성적에서 기타지역 수험생에 비해 불리한데다 졸업당시 나빴던 내신성적을 만회하기위해 너도나도 검정고시를 치르는것.

C학원의 경우 전체 5백40명의 재수생중 1백50여명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응시했다. 이들은 대부분 졸업당시 중등급이하의 내신성적을 얻었던 학생들인데 고등급의 내신성적을 따내기위해 검정고시를 치른것.

1·2학년때 학교 성적이 나빠 지난해 졸업하면서 내신 7등급을 받았던 趙모군(20)은 검정고시에 합격한뒤 대입학력고사에서 2백80점을 따내 쉽게 내신1등급을 얻었는데 이경우 趙군은 15·7점을 더얻은 셈이다.

趙군에의하면 재수를 하면 학력은 그만큼 향상되는데 내신성적이 그대로여서 재학생에 비해 불리해 내신4등급이하의 많은재수생들이 검정고시를 치렀다는것.

J학원의 한교사는 자신이 알고있는 재수생중 60명이 좋은 내신을 얻기위해 검정고시를 치렀으며 고2실력이면 쉽게 합격할수있기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재학생이 졸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경우는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올해엔 눈에띄게 늘어났다.

C학원의 경우 지난해 재학중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한뒤 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40여명에 이르렀다는것.

이들과 상담했던 金모씨(47)은 『1·2학년때 학교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각 대학마다 내신반영률이 높아지자 낮은 등급의 내신을 받게될것을 두려워해 검정고시로 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늘어가고있다』며 『소위 명문고교의 중퇴자 대부분이 이런류의 학생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S高 3학년 담임교사 崔모씨(47)는 『지난1학기에 3명이 자퇴했는데 나중에야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자퇴한 사실을 알았다』며 『동료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의 상담을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매년 더 심해질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재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몰리는 현상은 현행고교교육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걱정했다.

관계자들은 검정고시 출신자에대한 내신등급산출이 정규고교졸업생보다 유리하지않게 재조정되거나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고교졸업자에게는 주지않는등의 다각적인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라고말했다. 【方敢俊기자】

◇喜·悲의 校庭 "내 이름이" 高麗大、延世大、梨花女大등 일부대학들은예정보다 빨리 27일 합격자를 발표、각 대학교정은 합·불합격자들로 희비가 엇갈렸다. 【27日高麗大에서】

高大 3百1명未達·延大7개과 2·3志望충원

合格者발표…2차銓衡 안해

梨大도 발표…未達없어

高麗大는 27일 모집정원5천6백3명에 3백1명이 미달하는 5천3백2명에 대한 신입생합격자를 발표했다.

高麗大는 법학과가 정원3백90명에 81명이 미달하는 3백9명만을 뽑았고 경영계열의 경우도 5백20명모집정원에 4백83명, 영문과도 2백21명 정원에 1백95명만을선발했다.

高麗大는 이날 전체합격자수가 정원에 미달하지만 좋업정원은넘어 2차전형은 실시하지않기로했다.

결과 상당수의 지원자가 낮은점수로 배짱지원을 해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 지원학과가 정원에 미달했더라도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延世大는 27일 상오9시모집정원 5천4백60명에 대한 신입생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延世大는 면접전형결과 7개학과가 미달이었으나 2、3지망으로 모두 충원, 2차전형은 하지않기로 했다. 합격생들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게된다.

梨花女大도 4천4백72명의 합격자를 이날하오5시발표했는데 학교당국은 미달학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체검사는 28일부터 29일까지.

10代 한밤 편싸움

高校生 1명 숨져

凶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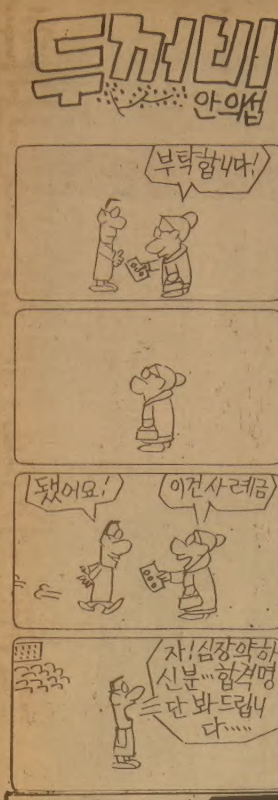
26일 하오10시께 서울冠岳區奉天4洞541의14 조광약국 앞길에서 이동네 李範重군(17·K실업고1년)등 4명이 같은또래 7명과 편싸움을 하다 李군은 상대편에서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숨졌다.

이날 편싸움은 李군등이 부근 친구집에서 나와 약국앞을 지날때 달아난 7명이 『왜 째려보느냐』고 시비를 걸어 시작된것.

東大총장 黃壽永씨

東國大 10대총장 黃壽永박사취임식이 교직원 학생등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7일상오10시 東國大중강당에서 열렸다.

黃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불교대학의 특성을살려 학교발전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物證위해 필요하면 家宅수색

鄭군 證據보강…내달 12일께 起訴

叔母 "아침에 辭典든 鄭군目擊者찾는 전단뿌리겠다"

朴尙恩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동부지청은 진범으로 단정, 구속한 鄭載巴군(21·I工大행정학과3년)을 내달12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보강을위해 구속기간(10일)을 한차례 더 연기할 예정이라고말하고 이 기간중 鄭군이 『버렸다는』 반지등 결정적인 물증등을찾는작업을 적극 펴게될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필요한경우 鄭군의 집을 상대로 가택수색도 할수있다고 밝혔는데 한검사는 『鄭군이 그동안 일기나 張慶秀군에게보내는 사과편지등을 쓴사실은 없는것같다』고 전했다.

朴尙恩양에게 전화를 걸어 준것으로 검찰에의해 알려진 鄭군의 숙모張씨(31)가 전화를 걸어준 사실을 계속 부인, 이사건은 공판정에 가서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張씨는 27일 『鄭군이 우리집에 왔던것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9월19일 상오9시께』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이 두가지 사실을 밝히기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주변의 목격자를 찾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등 가능한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張씨는 가정백과사전이 부피가 큰 물건이기 때문에 鄭군이 이를 들고 가는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을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밖의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鄭군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했다는 사실은 『통화내용 전부의 문맥에서 이해해야할것』이라고 말했으나 「잠의사실 자체」는 부인하지않았다.

검찰은 張씨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친족이 무슨일을 하든 관여할바아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張씨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鄭군 辯護士3명 선임

어제 城東구치소서 鄭군만나

鄭載巴군의 가족은 27일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卞甲圭·羅正旭·尹泰邦 변호사등 3명을 선임, 이날 상오 서울지검 東部지청사건과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27일하오 1시30분께 城東구치소에 있는 鄭군을 만나 재판에 관한 문제를 1시간가량 협의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알리바이證明이 조작으로

鄭군·가족「異口同聲」으로 對備

自白후도 11時귀가·電話부탁 否認

叔母집에간날짜도 서로 같게 統一

"事件날 집에만있었다"叔母집棟號數도 허위진술

서울지검東部지청은 朴尙恩양이 피살된후 鄭載巴군이 범인이란것을알면서 가족들이 여러차례 모여 鄭군의 알리바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방어대책을 세웠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검찰이 그같이 보는이유는 ▲鄭군이 검사와의 대결에서 패배, 끝내 범행을 자백했으나 鄭군이 사전에 맞춘 알리바이를 제시했을것으로 판단한 가족들은 이구동성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18일밤 鄭군이 외출한 일이 없고 밤11시께 문을 열어준 일도 없다고 주장했으며▲숙모張씨도 鄭군이 집에온것은 18일이 아니고 19일상오 남편의출근때였다고주장했다.

더구나 숙모 張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다녀온후 鄭군 집으로 전화를걸어 『나는 敵門를위해 전화를 걸어준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부모가 시인하면 어떻게되느냐』고 할까지했다.

검찰에의하면 검찰의 재수사 초기때 鄭군은 1·2·3차 자술서를통해 숙모집에간 사실은커녕 동호수까지 허위진술, 완벽한 알리바이를 과시했다는것.

또 鄭군아버지는 지난19일 검찰이 鄭군을 연행하기이전에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받은 鄭군연수동기생들에게 지나친만큼 꼬치꼬치 조사내용을 캐물은 사실이 있어 검찰은 이를 「참고용」으로 해서하고있다.

검찰에의하면 鄭군은 21일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숙모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부탁한것과 어머니가 사건일 밤11시 대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만은 끝내 숨겼다.

그러나 검찰은 『평소 문단속을 잘해 3번이나 도둑을 맞은 일이 있다』는어머니李씨(43)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논리적으로鄭군을추궁, 『어머니가문을열어주었다』는자백을얻어낼수있었다.

鄭군의 어머니는 朴양사건 수사초기 張慶秀군과함께 鄭군이 연행됐을때 『이 불쌍한것』하면서 통곡을 한일이 있고 그뒤 23일 범행을 자백한 녹음을 틀어주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죄는 폭행치사죄』라고 전문다』고 말했다는 해외연수동기생 金모군(21)의 진술과 가담게 주장, 범행을 알고있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런데 鄭군은 다른 해외연수 동기생들과 함께 지난해 9월22일 경찰에가 1·2차 두차례 자술서를 쓸때도 당시 사건발생일로 추정됐던 9월18일밤『9시에 잠자리에 들어 일찍잤다』고 썼고 그때도 잠미아파트의 숙모집에 잤다는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鄭군 가족들도 鄭군과 마찬가지로 진술, 알리바이를 증명해주었다.

그뒤 9월26일 鄭군집으로 찾아간 경찰은 친지·애인관계등을 모두쓰도록하고 3차자술서를받았는데 鄭군은숙모집을사실과달리 「26동 1205호」로기록했었다는것.

그러나 재수사에나선 검찰은 경찰기록을 검토하는과정에서 사건발생당일 鄭군이 전화를 걸어『尙恩이가 죽었으니 우리가 골치아프게 됐다』경찰진술이 거짓임을 확인, 이를단서로 鄭군에게 용의점을 두기시작했다는 것이다. 【任喆淳기자】

가늘고 긴 새담배가 나온다

—값·맛 솔水準…빠르면 5·6월께

專賣廳, 民統線북쪽 30만坪에 人蔘재배키로

오는 5·6월께 새담배가 나온다. 또 6·25사변후 처음으로 휴전선 민간통제 구역안에 인삼재배단지가 들어선다. 27일 전매청이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따르면 새로 내놓을 담배는 맛은 현재의 솔담배수준으로하되 모양을 일반담배보다 가늘면서 길게만든다는것이다. 일반담배 길이가 84㎜인데 반해 새담배는 1백20㎜로 길이가 1·5배가량길지만 굵기는 일반담배의 절반정도로서 한때 시중에 나돌던 美國담배 「MORE」와 비슷한 것이다. 새담배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월계관」「꽃님」「실버들」「가야금」「까치」「거문고」「백자」「목련」「향로」「미소」등 10여가지가 후보명칭에 올라있으며 빠르면 오는 5·6월께 선을 보이게되는데 값은 솔이나 거북선과같은 4백50원선이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매청은 올해 인삼 경작지역을 늘리기위해 새로 75만평을 확보하면서 民統線 북쪽지역에 30만평의 인삼재배단지를 마련했다. 6·25후 처음 인삼재배가실시될 휴전선지역은 京畿道 坡州郡과 漣川郡, 江原道鐵原郡내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그간 전매청의 시험재배결과 인삼재배에 적당한지역으로 밝혀졌다. 이들 민통선북방지역엔 현재 京畿道 金浦 江華지역에서 인삼재배를 하고있는 업자가운데 희망자들을 골라 이주시킬것으로 알려졌다.

새벽술집에 불 5명숨져

【釜山=聯合】 27일상오6시10분께 釜山鎭區 釜田2洞257 술집 돌체살롱(주인 金상우·37)에서 불이나 金성진씨(22)등 남녀종업원5명이 질식, 불에타숨졌다.

이날 불은 목조2층 슬레이트건물인 술집내부에서 발생, 1백60평중 술집 25평과 이웃 광명당안경점 참고5평등 모두 30평을 태우고 20여분만인 6시30분께 진화됐는데 종업원들은 술집내부에서 잠자다 갑자기 번진 불길과 유독 가스를 피하지못해 변을 당했다.

경찰은 술집내부의 천장에서 전기가 누전됐거나종업원들이 난로취급을 잘못해불이 난것이 아닌가보고 화인을조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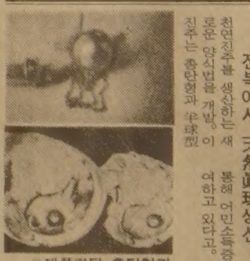
불을 처음본 釜田시장경비원 朱良浩씨(64)에 따르면 이술집은 이날 새벽2시까지 영업을 하고있었는데 3번째 순찰을 돌고있던 6시15분께 술집의 큰길쪽 중간부근에서 불길이 창문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것.

◇사망자 ▲金성진(22·晋州市蓬萊洞55)▲金동섭(20·경북安東郡南先邑亭下洞51)▲李배명(22·경기도安養市安養2洞851)▲徐윤심(22·釜山市影島區 靑鶴洞115)▲신원미상 여자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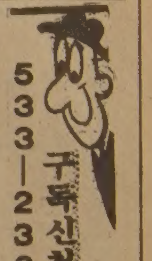
새商品

전복에서 天然眞珠생산

慶南 統營郡山陽面美水里363에 위치한 모란계양식장(대표 趙元鎬)은 최근 전복에서 천연진주를 생산하는 새로운 양식법을 개발, 이진주는 총탄형과 半球型으로 각질 능주질 진주질등 3층으로 형성돼있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된 진주 50만달러어치가 미국 티파니보석상과 흥정중이라고 하는데 양식법을개발한 趙씨는 무료기술지도와 위탁양식을 통해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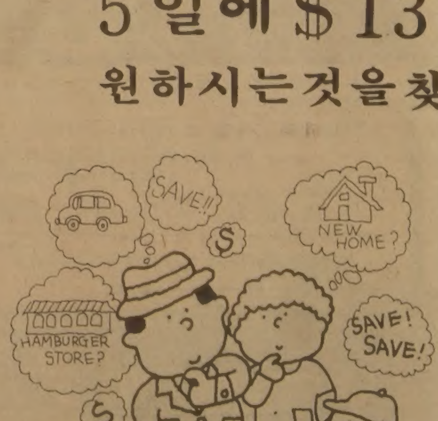
◇제품화된 총탄형과 반구형진주㊤, 전복속에 들어있는반구형.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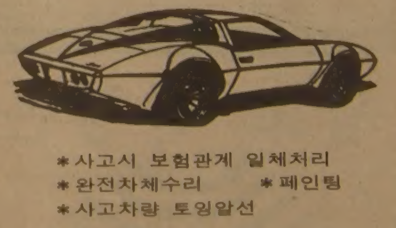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31일자
舊正 특별호
주간女性
갑자기 솟아난 미모의 무용가 발레 선생
—放送街서 인기 폭발한 캐더린·베스트嬢
李永河 선수의 新記錄 설계
不姙女 판별하는 異色 논문
한국인이 美영화 제작·主演
續·羅女列傳 크산티페
校服등 자율화와 순결 교육
스타 趙容弼의 「無名 시절」
캐럴라인 公主 임신說 파다
〈탤런트 金英蘭〉
10代 소녀 노리는 淪落街 파렴치범 수법 公開
春園의 둘째 딸 李廷華 여사의 追憶 나들이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5일에 $13 로
원하시는것을찾으실수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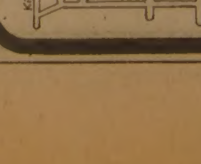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등 모든것을 사고 파실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5일에 $13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광고문안을 아래 네모칸에 알맞게 적으셔서 CHECK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게재됩니다.
*1칸 : 5일—$13 두칸 : 5일—$26 세칸 : 5일—$39
1칸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AD. DEPT.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완전차체수리 *페인팅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세호
(B)231-6951
(R)742-5406

한국、데盃 준결승 進出

比에 4單式승리、複式만 놓쳐

3월 印尼와 對決

【마닐라24日UPI=聯合】韓國남자테니스대표팀은 24일 끝난 83년도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동부지역예선 2차전(준준결승)에서 필리핀을 종합전적 4—1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마닐라의 리잘기념코트에서 속개된 경기에서 全瑛大는 알렉스·마르시알을 8—6、6—2、6—3으로、金春浩는 마누엘·발레라모스를 6—4、7—5로 각각물리쳐 韓國은 복식에서만 1패를 기록하고 4단식에서 전승을 기록했다。

韓國은 오는3월초에 인도네시아와 준결승전을 벌이며 여기서 이길경우 오는5월의 최종예선전에 진출、대망의 본선진출권을놓고 일전을 겨루게된다。

세계최강16개국이 출전하는 내년도 데이비스컵대회의 아시아·大洋洲 본선진출팀은 4개국으로 이미 濠洲 뉴질랜드 印度3국이 본선티킷을 따놓았다。

◇최종일전적

한 국 4—1 필리핀

全瑛大 3 (8—6 6—2 6—3) 0 마르시알

金春浩 2 (6—4 7—5) 0 발레라모스

◇勝者의 V字 83년도 데이비스 컵 본선진출을 노리는 한국대표들(左로부터 金春浩·宋東燁·田昌大·全瑛大)이 필리핀에 거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있다。【마닐라AP聯合=聯合】

서울國際야구 출전대표팀

27일轉地훈련차 臺灣향발

9월 서울의 세계아마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대표선수단이 27일하오 전지훈련을 위해 臺灣으로 떠났다。임원4·선수27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2월2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프로진출 희망자인 실업팀소속대표 李海昌、金在博、沈載元、崔東原등도 야구협회측의 격려금지급약속을 받아들여 이날함께 출국했다。

◇선수단

▲단장=金起勳▲감독=魚友洪▲코치=裵星瑞·金忠▲선수=崔東原·金始眞·任昊均·尹學吉·吳泳日·宣銅烈·金泰根·李相君·金相基·金正洙(이상 투수) 沈載元·金鎭雨·韓문연(이상 포수) 金在博·金相勳·李碩揆·鄭求善·朴榮泰·李善雄·韓大化·朴鍾勳(이상 내야수) 李海昌·柳斗烈·張孝祚·金貞洙·趙城玉·朴魯俊(이상외야수)

한국、걸프팀 꺾어

국제親善핸드볼 29對21

【매나마(바레인)26日=聯合】韓國은 26일 쿠웨이트 아랍홀에서 열린 제2회 국제친선핸드볼선수권대회 예선1차전에서 아랍·걸프 선발팀을 29대21로격파、서전을 장식했다。

韓國은 전반전을 14—11로 리드했다。

韓國은 시종 포드林英喆 姜泰求등의 뛰어난 공격력으로 경기를 주도했다。林은 9골을넣어 최다득점을 기록했고 姜도 6골을 넣어 韓國승리의 주도적역할을 했다。

韓國은 中共과 예선2차전을 갖는다。

한편 주최국 쿠웨이트도 25일 바레인을 32대26으로 물리치고 2차전에 진출했다。

韓國은 오는30일까지 쿠웨이트·中共·바레인·아랍선발팀 및 스웨덴의 사브샤우브 클럽팀과 예선전을 갖게되는데 준결승은31일、결승전은 오는2월1일 벌어진다。

오사까大會서 14位 林殷珠에 1百만원

마라톤후원

한국마라톤후원회는 지난 24일제1회 오오사까국제여자마라톤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세우며 14위를기록한 林殷珠선수(遞幣公社)에게 1백만원의훈련비를보조키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最優秀복서 페드로사

WBA 1월랭킹발표 웰터1位 黃忠載

【파나마시티26日=聯合】WBA(세계권투협회)는 26일 WBA각체급1월 랭킹을 발표、타이틀 14차방어에 성공한 페더급챔피언 에우세비오·페드로사(파나마)를 1월의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한국의 WBA 랭커(16명)

▲미들급7위 朴鍾八▲웰터급1위 黃忠載▲주니어웰터급2위 金相賢、7위 李相鎬▲라이트급9위 金光玟▲주니어라이트급3위 文泰鎭、10위 崔忠日▲페더급4위 柳煥吉▲주니어페더급6위 金貞喆、8위 鄭巡鉉▲주니어밴텀급5위 權順天、8위 李承勳▲플라이급10위 金泰式▲주니어플라이급2위 金成南、3위 金煥珍、8위 張正九

科学短信

무료 開聽수술실시

라이온스 聽力센터

창립2주년을 맞은 서울대학병원·한국라이온스청력센터(소장 白萬基)는 올해 中耳炎으로 청력을 잃은 영세민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開聽수술을 실시한다。강서·무궁화·무학·삼천리·상록·의정부·중부·칠칠·한성·해양등 국내10개 라이온스클럽과 일본의 오짜노미즈 라이온스클럽등 11개 단체의 지원으로 실시하고있는 한국라이온스 청력센터의 무료開聽수술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연락처 ☎765-0765

14K 중량未達많다

주부클럽、金제품規格化 건의

제품중순도가 떨어지고 중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은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주부클럽연합회가 시중백화점과 일반점포에서 구입한 9개의 14K 제품에대해 동력자원연구소에 분석시험을 의뢰한결과 살때 14K 3돈짜리(11·25g)라고한 제품의 실제중량은 7·149g으로 36·5%나 중량미달이었고 나머지중 5개제품도 32·2%~2·4%가 중량미달이었으며、3개제품은 약간중량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14K제품의 보유상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가구중 1개보유가 13가구、2개보유 8가구、3개보유 2가구、4개및 5개보유가 각각 1가구였고 안가진 가구가 1가구로 1가구당 평균1·67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부클럽연합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14K제품을 살수있고 상인들이 불량상품을 못만들도록 14금도 24금과 같이 규격화할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두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꼼짝않고 있네요!"　"장기는 바로 사람의 혼을뺏어가는 놀이야"　"허브가 백일몽만을꾸고있는건 아니야…。허브는 다음 한수로 결판이 나게돼"　"내차례라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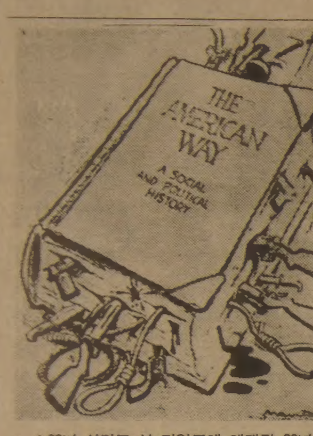
아내의 장바구니 밑에 살짝 넣어놓는
주간여성
행복한 결혼속의 작은 기쁨입니다

美國의歷史는 한두개事件의 연속

復古主義지향하는 極右 단체 존·버치會의 극단론

"反美國主義者들이 미국을 支配"

美國 이런일·저런일 ⑨



◇68년 시카고·선·타임즈에 게재된 60년대 미국사회의 폭력화현상을 풍자한 만화。케네디형제, 킹목사, 말콤·X의 암살등 폭력사태를 만화가 빌·몰딘은「美國式社會와 政治의歷史」라고 표현했다。

존·버치會(John Birch Society)는 58년 매서추세츠州 실업인 로버트·웰치가 주동이 되어 창설한 極右保守主義 단체。하버드大의 세이모어·립셋 교수에 의하면 매카디즘이후 60년대전반에 걸쳐 미국을 풍미한 극단·극렬주의 운동단체며 그뿌리는 건국 초기에 대두한 反엘리트주의를 내세운 反프리메이슨黨(Anti-Freemasonic party)과같다는 것이다。

이 會와 黨의 이론의 근거는 지배집단이「프리메이슨」이라는 秘密結社의 단원으로 미국을 반 프로테스탄트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음모의 가설」(Conspiracy Theory)에두고있다。

웰치는 62년「美國人의 여론」이란 會의 잡지를 통해「일루미네이티」(秘密結社의뜻 Illuminati)가 미국의 자유를 파괴하려 음모 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가 밝힌 일루미네이티結社의 원천은 1776년 獨逸바바리아州에서 아담·바이스하우프트(法學敎授)가 결성한「매존」會인데 결사의 목적은 反교황운동、전반적 자유、세계공화국건설등을위해 폭력조직을 한다는것。이 會의 국제화는 프랑스 혁명의 주도세력이 되도록했고 미국에서는 제퍼슨 대통령의 연방주의를이룬 주류가 되었다는것이며 極右·保守의 적은 바로 이들이라는 주장이다。

웰치는 世界 共和國을 이루려는이들결사당원이 18세기에는 프랑스계몽주의의 영향하에 미국의 정치를 요리한 事大主義者가 됐으며 20세기들어 福祉국가、共産主義와협상을 피한자들역시 모두이들 秘密당원출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카디상원의원을 축출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바로 20세기들어 국제공산주의의 배후세력을 이룬 이秘密結社의 당원이거나 교사를받은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논리를 비약시켰다。

립셋교수는 이런 극단론을 보편화하여 추종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누군가가 더좋았던 세상을 파괴하기위해 음모 작당하고 있다』는「陰謀의 가설」이 필요했고 이조건에 맞추기위해 강력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로 취급하게 된다고 분석했다。따라서 집권 엘리트들이 行하는 少數民族의 이민허용、가톨릭의 정치참여、黑人의 민권신장、聯邦稅의증수、社會福祉정책、對蘇和平주의등은 모두 이들 극단 秘密結社원에겐 음모작당으로 풀이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극단주의자들은 미국의역사를 자유의점진적신장이라는 계속성으로 보기보다 한두개 사건의 계속으로 보고있으며、미국의 지배자는 미국의 토종주의(Nativism)자가 아닌 국제자유주의자들이며 反미국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그들을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복고주의를 지향하고 연방론에반대하며 세상을 多元보다 單一로보는 전체주의세력이 되게 마련이다。

뉴욕 州立大 로런스·위트너 교수(「冷戰美國」의 著者)의 조사로는 이런30개極右 政治조직이 63년에 政治자금을 모집한총액은 1천4백30만달러에 달했고、버치會의경우 5백만달러 모금실적에 회원수가 6만에서 10만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들 極右단체의회원의 근간은 소수민족이민군에 사회적지위를 빼앗긴 토종백인 중산층이하의 사람들이며 시크 안전면도기회사、테크닉컬러회사、리치필도석유회사등 재벌급회사가 후원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논리의 極右極端論은 2백여년간 진행되어오지만 논리가 非理性에 의한 비약、억지에있기에 큰 발전이 없다。

이들이 발전하려면 極左極端論者와 충돌해야하는데 극좌는 극좌에 머물러 있을뿐 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대신 急進自由主義者들이 60·70년대후반까지 학생단체와 함께 反 보수의 여러운동을 해왔다。【朴涌培기자】

邦畵출연위해 來韓 「戰鬪」의 빅·모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는정도에 지나지않습니다。그러나 한국전쟁은 전사를 통해 잘 알고있고、당시 한국인들이 겪은참상도 알고 있읍니다』

체한 3일을 보낸 빅·모로(53)는 전쟁영화의 영웅담게 30여년전의 한국전쟁、특히 仁川상륙작전의 성공비화등은 잘 알고 있다고말한다。

갈색머리칼、푸른 눈、오똑한 콧날 아래의 콧수염이 인상적인 빅·모로는 차가운표정이다。그러나 말씨는 부드럽다。

스펙터클 戰爭物아닌 감동적人間愛에 호감

『한국영화의 출연요청에 응한것은「아벤고…」가 스펙터클 위주의 전쟁영화에서 벗어나 감동적인 인간애를바탕으로 하고있기 때문입니다。내게는 가치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나에겐 價値있는 作品이며 뜻있는役" 밝혀

요즘 어린이에 惡영향 공포영화氾濫 걱정

빅·모로는「아벤고…」의 알렉산더 대령역이「전투」의 분대장역보다는 비중이낮지만 뜻있는 역이라고 밝힌다。

29년 2월14일 뉴욕에서 태어난 빅·모로는 플로리다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으나 54년「폭력교실」에 불량학생으로 출연、영화배우로 데뷔했다。대표작은 국내에서도 방영된 TV시리즈 영화「전투」를 비롯해「욕망의 계절」「몬테칼로 73」등。그외 TV영화「폴리스·스토리」「보난자」「환상의 섬」「최전선」등에 출연했으며「뿌리」에서는 노예감독역으로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손수 시나리오를 쓰는 외에 제작·감독·주연을맡아 1인4역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도했다。

제임즈·가너가 출연한「슬레더」를 감독했고、「전투」시리즈중 5편을 제작·감독·주연했으며、12편의 감독을맡았다。빅·모로는 최근의 할리우드영화산업에대해『수준높은 대작들의 흥행실패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주는 공포영화가 범람하고있어 걱정』이라고했다。모로는 그의 개인비서이자 영화배우인 마더·스미드양(23·「댈라스」、애니멀·하우스등출연) 매니저 찰스·리와 동행했는데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그는 65년이후 혼자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6일저녁 宇進필름이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한 모로는 공연할 한국배우들을 보고『저분들이 모두 내 부하냐』고 익살을 떨기도했다。빅·모로는 27일부터 2월6일까지 촬영을마치고 10일께 떠날예정이다。

◇빅·모로씨

◇延 禎 씨

6·25동란 배경 영화 2편제작

인터뷰

TV시리즈영화「전투」의 분대장 빅·모로가 宇進필름이 제작하는 전쟁영화「아벤고 공수군단」에 출연하기위해 한국에왔다。또 6·25동란때 美극동사 첩보원으로 활약했던 재미동포 延禎씨가 美20세기 폭스사제작의 전쟁첩보영화「元山작전」을 준비하기위해 일시 귀국했다。공교롭게도 이두영화는 똑같이 6·25동란을 소재로하고있으며 또 두사람이 같은 시기에 한국에 머물고 있어 영화가의 화제가 되고있다。이들을 만나본다。

諜報맨 延禎씨귀국 美映畵 촬영도우러

『한국전쟁이 미국영화의 소재가 된일은 많습니다。그러나 이번「元山作戰」의 영화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6·25동란을 외국에 바로 인식시키고、산화한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20세기폭스사의 제작제의를 받아들이고 돕기로 한것입니다』

延禎씨(58·美글로벌·세이빙스은행이사)는 자신의 첩보실화저서「캐넌기관의 증언」중 일부를 美20세기폭스사가「元山作戰」이란 제명으로 영화화하게된 배경을 설명한다。

「元山作戰」영화화는 6·25 바른인식계기

「元山作戰」은 51년3월11일 객지에서 감행된 첩보전。당시 인민군들이 페스트로 쓰러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Z·유니트(일명 캐넌기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민군야전병원의 시체를 탈취한 작전으로「페스트시체탈취사건」으로도 불린다。

『당시 맥아더사령관은『적과는 싸울수 있어도 병균과는 싸울수 없다』며「철군」이냐「진군」이냐의 갈림길에서 고심했지요』

자신의 著書「캐넌기관 證言」폭스社映畵化

8백만달러 投入…季節감각맞춰 10월촬영

결국 당시 美극동사첩보원이었던 延씨와 군의관 샴즈준장、클라크대위、공작원들이 야음을 이용, 인민군의시체3구를 탈취、페스트 아닌 장티푸스임을 확인、맥아더의 작전계획수립에 크게기여했다。

「元山作戰」은 美20세기폭스사가 8백만달러(선전비3백만달러포함)를 예정으로 촬영을 준비중이라고。제작은 프러듀서 베르즈·노블즈가 맡았고、케니·로저즈의 전기영화를 각색한 짐·번즈가 5번째 시나리오를 손질하고 있다는것。

『당시 작전이 실시됐던 3월의 계절감에 맞춰 오는 10월 한국에서 크랭크인 예정이며 한국에서 70% 일본에서 30% 로케이션을 계획하고있다』고 전한다。출연진은 맥아더역에 그레고리·펙。延씨역에 재미배우 맷·金(?)이 내정됐으며 감독은 미정이라고。延씨는 원작료로 10만달러를 받는외에 한국·일본로케이션선정용으로수익금의 10%를보장받았다고밝혔다。

그의 일시귀국은「元山作戰」의 한국측캐스팅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힌 延씨는『이름도 없이 숨져간 8240부대원과 당시의 용사들에게 이영화를 바치고 싶다』고했다。또 맥아더장군의 인간애를 담아 미국인사들에게 보여주는것이 제작자의 뜻이라고했다。

바둑소식

金鍾範·朴相燉기사 작년 勝率1位

徐奉洙7단 국내 最多對局보유자

覇王타이틀 방어 曺薰鉉 고지先占

◎…한국기원소속81명의 기사가운데 지난1년간 가장 勝率이 높은 기사는 金鍾範·朴相燉 두 초단으로 각각 83·3%(5승1패)를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원이 발표한 기사전적표(81년1월1일~12월31일)에의하면 2위는 黃元俊3단의 승률 82·5%(33승7패) 3위 金日煥4단의79·5%(31승8패) 4위 林宣根2단의 76·5%(14승4패) 5위 金秀壯5단의 73·1%(19승7패) 6위 曺薰鉉8단의 72·9%(35승13패) 7위 洪太善4단의 71·1%(27승11패) 8위 李基燮4단의67·9%(19승9패) 9위 趙大賢초단의 66·7%(8승4패) 10위 梁宰豪2단의 65·2%(15승8패)로 되어있다。

승률베스트10을 보면 曺薰鉉8단을 제외하고 거의 低段陣기사들로 각 棋戰의 본선리그진출도 부진한편이나 승률이 좋은것은 대국수가적었던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참고로 2관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徐奉洙7단의 경우 승률은 64·5%(40승22패)로 약간저조하나 지난한햇동안 총62국을 두어 국내最多대국보유자가됐는데 이가운데 40국을 승리、最多승리대국도 기록했다。

이밖의 最多勝局순위는 2위가 曺薰鉉8단의 35국、3위가 黃元俊3단의 33국、4위는 金日煥4단[illegible] 5위는 河[illegible]단의 28승순이었다。

◎…지난20일 열린 제17기 覇王戰도전 5번기 제1국에서 覇王 曺薰鉉8단은 도전자 姜勳4단을 半집차로 눌러 타이틀방어의 유리한 고지를 先占했다。

◎…제1회 世實盃쟁탈아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가 오는2월7·8양일간 한국기원에서열린다。

世實실업주최의 이대회의 참가자격은 2급이상의 棋力소유자로서 참가마감은 2월6일하오 5시까지 한국기원사업부(☎723-0150)。대회의 우승자에게는 50만원상당의 상품이、2등은 30만원상당、3등은 20만원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薰】

最惡의 연예인 수전·소머즈

美 독자투고서 選定돼 話題

美대중들에게 가장 불쾌감을 자아내게하는 연예인은 누구일까。최근 美캘리포니아 트·매릴린·베이 독자투고를 통해 선정한「엉터리선발대회」의 입상자(?)가 발표되어 화제。

최악의 연예인은 수전·소머즈。소머즈는 현재 TV대화쇼를 맡고있는데 독자들은 그의 뻔뻔스러움을 공격하면서 출연중지를 요구。벽재주도 없이 엄청난 출연료를 요구하고 제작진과의 마찰도 심하다는 것。

엉터리영화로는「타루」「끝없는 사랑」「유인원 타잔」순이며 버트·레이널즈가 출연한「캐넌볼」과 줄리·앤드루즈의「SOB」야말로 주연배우들을 타락시킨 원흉이라고 혹평한다。

특히「SOB」의 에드워드감독은 아내 줄리·앤드루즈를 벗겨 욕을 먹었고 감독 존·데리크도「유원인 타잔」에서 아내인 보·데리크를 발가벗겨 누드를 과시、아내의 육체미로 돈벌 궁리나한다고 빈축을 샀다。【外誌】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화,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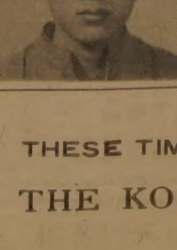
OPEN HOUR
월~목 11 : 30~11 : 00 P.M
금 11 : 30~2 : 00 A.M
토 1 : 00P.M~2 : 00A.M
일 1 : 00P.M~10 : 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 977—3452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런던지역 지국장입니다
강 상 권 : ☎ 432—5931(B)
681—6925(R)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6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나스 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시간 : 오후4시～12시, 밤12시～오전8시
(FULL 타임)

그리고 도나스 가게를 맡아서 일하실 부부원함
☎ : 531－2689

개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실분 급구
가능하면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 환영
☎ : 537－0208 박(아침9시～밤10시까지)

경험있는 여자캐셔 구함.
오후4시부터 9시까지(서부지역)
261 Scarlett Rd. ☎ : 767－0762

입주하셔서 애기(2년반)보아주실분 구함.
(더프린 × 스틸)
☎ : 669－5784

입주하셔서 네살난 아이와 1살난 아이 봐주실분 구합니다.
☎ : 242－2064(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 284－4575(MR. LEE)

아이들(4살, 2살반) 보아주실분
연락바람(서부지역)
☎ : 678－2651

스토아 메네저 구함.
(몬트리올 지역)
☎ : 1－(514) 637-6444

동부지역에있는 가게에 오후7시이후 파타임 캐셔로 일하고자함 ☎ : 421－6000(EX. 323)오후5시까지
293－6138오후5이후

자동차 메카닉 헬퍼구함.
중앙오토 써비스
☎ : 532－3946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매매및 양도

* 그로서리·과일가게 *
마른음식과 땅콩등,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쉽게 번창할수 있는것임.
연매상 : $ 170,000
크 기 : 대강 1800 Sq.f.
아스킹 : $ 24,000＋스탁
리 스 : 5년＋옵션5년
☎ : 425－1255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세탁소 매매
스카보로지역 오전9 : 00～오후3 : 00
☎ : 751－7615

그로서리 가게 매매
조그마한 가게를 원하시는분 연락바람.
61메인 스트리트 ☎ : 694－7848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654－7010(Mr. Pucci)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8,000, 머신 $ 800, 렌트 $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 10,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 4500, 아스킹 $ 41,000, 렌트 $ 400, 리스 1＋5(NO HEATING)
☎ : 221－2084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성업중인 가게급매
$ 65,000. (KEELE & SHEPPARD)
☎ : 633－7222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nforth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해밀톤 아파트 조밀지역에 전망좋은 과일가게를 개인사정으로 매매코자함.
☎ : 1－525－1326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3베드룸(방갈로) 차고있음
마캄·로랜스부근 즉시 입주가능
☎ : 822－4480(Mr.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관현

매매 부동산

록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학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8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번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톨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꽃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855. (R) 757－0905 넘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25

한 방 원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용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800 MISSISS.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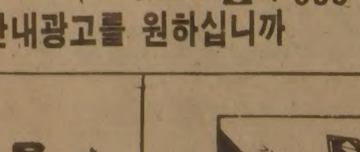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O' 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 : 533－2361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流星의 賊 <294>

風雅와 策謀 ㉕

李炳注 作
李友範 畫

그날 밤 히데쓰구의 술자리에 배석하여 술을 따른 여자는 이찌노다이(一之台)라고 했다。이 여자는 조정에서는 지체가 높은 기꾸떼이다이나곤(菊亭大納言)의 딸이었는데 얼마 전 상처한 히데쓰구는 기꾸떼이를 강박하다시피 해서, 이찌노다이를 자기의 정처(正妻)로 삼은 것이다。이찌노다이는 히데쓰구보다 10세 연상이었으나 그 아름다움은 낙중(洛中)에 따를 여자가 없었다。그녀는 한번 출가하여 망부(亡夫)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다。그딸 아직 11세。그런데 히데쓰구는 이 소녀를 오미야노까따(宮之方)란 이름으로 자기의 첩(妾)으로 했다。이를테면 모녀(母女)를 한꺼번에 희롱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모녀범간(母女犯姦)은 인륜(人倫)에 없는 짓이다。짐승만도 못하다』

고 사람들은 숙덕거렸고 실부(實父) 기꾸떼이도 모녀를 한께 희롱하는 히데쓰구의 무법에 노하여 눈물지었다。

히데쓰구가 장님을 죽인 자랑을 한 것은 이찌노다이가 공가(公家)의 출신이며 칼날이나 피를 보면 치를 떨만큼 마음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어때』

하고 히데쓰구가 감상을 물었다。

이찌노다이는 잠자코 있었다。

『뭐라고 말해보란 말이다!』

히데쓰구는 모녀가 입을 열도록 강요했지만 이찌노다이는 취락제에 온지 벌써 1년 여가 지났지만 히데쓰구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 무렵 히데쓰구가 거느리고 있는 처첩(妻妾)은 수길(秀吉)이 제한한 수를 훨씬 넘어 30여명으로 부풀어 있었다。

처음、자유롭게 행동하라고 권했던 기무라는 불과 1·2년동안에 그런 꼴이된 히데쓰구를 보며 후회보다도 공포를 느꼈다。수길의 엄격한 견제가 있고서야 겨우 사람구실을 할수있었던 것인데 기무라 덕택으로 히데쓰구는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만큼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마르게(丸毛)라는 노신(老臣)의 아내를 보곤、늙은여자의 맛은 어떤건가하는 호기심을 일으켜 억지로 불러내어 첩(妾)으로 만들어버렸다。아즈마(東)란 이름인데 61세였다。

50대의 여자는 없었지만 43세의 여자는 있었다。신하 오까모또(岡本)에게 어머니가 있다고 듣자、그런 여자의 맛은 어떨까 하고 그 여자도 첩으로 삼은것이다。

히데쓰구의 여자들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1인、30대가 4인、40대가 1인、60대가 1인、나머지는 20대였다。그 가운데 모가미요시미쓰(最上義光)의 딸 노이마 같은 다이묘오(大名)의 딸도 있었고、고야출신인 오따께란 여자도 있었다。

히데쓰구는 불과 1·2년 동안에 취락제를 처첩의 우리(檻)로 만들어버렸다。그리고 그의 나날은 이른바 주지육림(酒池肉林)、이에 싫증을 느끼면 밖거리에 출몰하여 살생(殺生)을 자행했다。

히데쓰구의 별명은 호색관백(好色關白)에서 살생관백(殺生關白)으로 바뀌었다。

수길은 경도에 있어서의 히데쓰구의 행장을 대강은 알고 있었으나 부하들이 조심을 하며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 까닭은 없었다。보다도 수길의 [illegible]정은 실자(實子)인 히데요리(秀頼)의 장래에 [illegible]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코다 보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